



C O N T E N T S

	인사말	02
	음악감독 요엘 레비	04
	수석 객원지휘자 곽 승	05
	KBS교향악단 소개	06
	2015 정기연주회 미리보기	08
10	제690회 도약하는 또 한 걸음, 음악의 환상 속으로 지휘 _ 요엘 레비 · 바이올린 _ 이타마르 조르만	
12	제691회 비르투오조를 만나다 I 익숙함 속에 새로움 - 니콜라이 데미덴코 지휘 _ 안드레아스 뮐프스 · 피아노 _ 니콜라이 데미덴코	
14	제692회 음악이 '영웅'을 말한다면... 베토벤 VS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지휘 _ 요엘 레비 · 피아노 _ 이고르 카멘스	
16	제693회 봄, 열정과 도취의 음악 속으로... 지휘 _ 발터 벨러 · 바이올린 _ 김윤희	
18	제694회 비르투오조를 만나다 II 바람을 타고 온 현의 노래 - 길 사함 지휘 _ 요엘 레비 · 바이올린 _ 길 사함	
20	제695회 음악에 드리운 빛과 그림자, 훔멜의 트럼펫 협주곡과 브람스 교향곡 제4번 지휘 _ 곽 승 · 트럼펫 _ 티네 텅 헬세트	
24	제696회 위안을 얻기 원한다면...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과 브람스 독일 레퀴엠 지휘 _ 요엘 레비 · 바이올린 _ 교수지 · 소프라노 _ 강혜정 · 바리톤 _ 스테판 겐츠 · 연합합창단	
26	제697회 한여름 밤의 낭만음악 - 베버, 슈만, 시벨리우스 지휘 _ 샤오치아 뤼 · 피아노 _ 하오천 장	
28	제698회 광활함을 품은 음악, 라흐마니노프와 차이콥스키 지휘 _ 요엘 레비 · 피아노 _ 로만 라비노비치	
30	제699회 비르투오조를 만나다 III 첼로의 매력 속으로 - 알반 게르하르트 지휘 _ 곽 승 · 첼로 _ 알반 게르하르트	
32	제700회 다시, 살아나리라 - 말러의 교향곡 제2번 '부활' 지휘 _ 요엘 레비 · 소프라노 _ 캐롤리나 울리치 · 메조 소프라노 _ 다그마르 페코바 · 연합합창단	
34	제701회 화해와 화합, 그리고 '환희'를 꿈꾸며...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지휘 _ 요엘 레비 · 바이올린 _ 에스더 유 소프라노 _ 캐슬린 김 · 메조 소프라노 _ 이아경 · 테너 _ 니콜라이 슈코프 · 베이스 _ 노대산 · 연합합창단	
	2015 정기연주회 일정	36
	2015 정기회원	38
	2015 K-Lang 회원	39
	2015 K-Pack 회원	40
	2015 정기연주회 티켓구매 안내	41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좌석배치도	42



GREETINGS

인사말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 Music Director of KBS Symphony Orchestra
요엘 레비 Yoel Levi

친애하는 청중 여러분,

KBS교향악단 모두를 대표하여 다채롭고 흥미로운 2015년 시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저와 KBS교향악단이 새로운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014년은 단원들과 서로 눈빛만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KBS교향악단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청중들을 위해 최상 그리고 최고의 연주를 들려드리고자 최선을 노력을 하였던 놀랍고도 성공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KBS교향악단 음악감독으로서 저의 도전은 2015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해로 그 책임과 역할의 무게를 느끼는 순간이지만, 연주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특별한 하모니를 만들어 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세계 비르투오조들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영 아티스트들과 함께 빛어낼 흥미로운 연주회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저와 KBS교향악단은 2015년 새해에도 청중들과 더욱더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연주회에서 만나뵙기를 고대합니다.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entire KBSSO family I would like to welcome all of you to our exciting 2015 season. I also would like to express our infinite gratitude to everyone who has helped and supported the KBS Symphony Orchestra and myself as we embark on a new beginning this year.

The year 2014 has been a marvelously successful one for all of us. The orchestra members and I have developed a deep connection and trust in each other, and together, we have committed and dedicated ourselves to deliver performances of the highest musical caliber.

The new season presents me with a new set of challenges and responsibilities as Music Director of the KBS Symphony Orchestra. I am looking forward to developing our orchestra into a truly special ensemble that moves and touches audiences' hearts. The new season will be filled with exciting concerts that our internationally renowned guest artists, inspiring young talents, and the Orchestra will create together.

The KBS Symphony Orchestra and I look forward to connecting with our audiences through musical masterpieces over the next season. I look forward to meeting many of you at our concerts in 2015.

(재)KBS교향악단 사장 - CEO of the KBS Symphony Orchestra

박인건 Ingun Park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KBS교향악단 사장 박인건입니다.

지난 세월동안 저희 교향악단을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출범한 지 2주년을 맞았던 2014년 지난 한 해, 클래식 음악계의 주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부지런히 공연장 안팎을 누볐습니다. 때때로 국민의 마음이 무겁고 침체되었을 때 정기연주회, 클로버콘서트, 지역 초청연주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등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기를 극복할 동력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2015년 새해에도 아름다운 음악으로 여러분들께 삶의 활력을 드리는 소임을 변함없이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클래식 한류를 이끄는 사절로 왕성한 활동을 펼칠 저희 교향악단의 새해, KBS교향악단의 상징이자 자부심인 정기연주회가 700회를 맞이하게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며, 요엘 레비 음악감독의 기획으로 명성높은 출연진과 교향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연주회로 구성되어 한층 더 감동적인 클래식 향연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향단을 향한 끊임없는 격려와 사랑 부탁드리며, 저희들은 청중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음악과 연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을 기원합니다.

Welcome to the KBS Symphony Orchestra!

I send a heartfelt thank you to everyone who has supported the Orchestra over the years. Last year, the KBS Symphony Orchestra faced its second year as a foundation and worked diligently to fulfill its role as a musical leader in Korea, as it has always done in its nearly five-decade long history. Throughout its history, the Orchestra has touched and consoled the hearts of many with its subscription concerts, outreach concerts, local concerts, and concerts for young people. Encourage and inspire through music will never cease to be the Orchestra's goal.

The KBS Symphony Orchestra will continue to carry out its mission as a cultural ambassador of Korea in the new season. The year 2015 is especially meaningful, as the Orchestra presents its 700th subscription concert. In addition, concerts played throughout the season, led by the esteemed Music Director Yoel Levi, are sure to enrich lives with music of the highest level of artistic caliber. Please keep supporting the KBS Symphony Orchestra—we are committed to serving our audiences and communities through musical excellence.

Thank you, and I wish you and your family health and happiness.

박인건



MUSIC DIRECTOR

음악감독 · 요엘 레비 Yoel Levi

“Levi's performance has its impressive moments. Levi's control here is absolute.”

요엘 레비의 공연은 인상적인 순간들이 있다. 그의 컨트롤은 절대적이다.

David Hurwitz, Classical Today, USA

루마니아 태생으로 이스라엘에서 자란 요엘 레비는 텔 아비브 아카데미 오브 뮤직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예루살렘 음악원에서 지휘자이자 작곡가이며 바이올리니스트로도 활동한 이스라엘 음악가 멘디 로단을 사사한다. 이어 이태리로 건너가 시에나와 로마에서 이태리의 거장 프랑코 페라라의 마스터클래스를, 네덜란드에서는 킬리 콘드라신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 후 영국 런던의 세계적인 길드홀 음악 연구 학교에서 수학했다.

세이지 오자와 등을 배출한 명망 있는 브람송 국제 지휘자 콩쿠르의 1978년도 입상 후에는 가장 로린 마젤의 부지휘자이자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상주 지휘자로 6년 간 활동했다. 1988년부터는 로버트 쇼가 이끌던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후임 음악감독으로 자리를 옮겨 2000년까지 12년 동안 이 오케스트라의 명성을 단숨에 끌어올렸다. 그의 임기 기간에 1991/1992 인터내셔널 클래식 뮤직 어워드(International Classical Music Awards(ICMA))의 “올해의 베스트 오케스트라”후보로 선정되었고 영국의 권위 있는 ‘그라모폰’ 매거진은 그의 활약으로 이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수준을 향상시켰다며 극찬했다.

유럽에서도 꾸준히 지휘활동을 늘려 자신이 몸담은 오케스트라들을 비평가들로부터 꾸준히 극찬 받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브뤼셀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던 2001년부터 2007년 사이, 요엘 레비는 일 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가 되어 2012년까지 파리를 포함한 일 드 프랑스 지역에서 다수의 정기연주회와 더불어 스페인, 동유럽, 런던을 아우르는 오케스트라 투어로 각 지역 언론에게 유럽 내 오케스트라들 중 가장 인상적 이면서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로 평가 받았다.

이스라엘인으로서는 최초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지휘자가 되어 오케스트라와 함께 미국, 멕시코 투어를 다녀왔고 2008년 이스라엘 건국 60주년 기념 특별연주회의 지휘봉을 잡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최근 다녀온 해외 연주로는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전국 투어, 일 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를 이끈 스페인 투어 등이 있다. 한편 노벨상 시상식과 같은 특별한 무대에도 초청돼 노르웨이 스톡홀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도 했다.

1997년부터 KBS교향악단과 수차례 호흡을 맞추어 왔던 요엘 레비는 2014년 음악감독 확정 후 그의 세련되고 섬세한 지휘와 탁월한 리더십으로 KBS 교향악단과의 탁월한 하모니를 이루어내어 각 언론과 평론에 호평을 받은 바 있다.

https://twitter.com/Maestro_Levi
Maestro Yoel Levi

Yoel Levi is known throughout the world from his work at the head of many of the world's most prestigious orchestras, his repertoire of symphonic, operatic and lyric works and his extensive discography.

Having won first prize at the International Conductors Competition in Besançon in 1978, he spent six years as the assistant of Lorin Maazel and resident conductor at the Cleveland Orchestra and went on to be Music Director of the Atlanta Symphony Orchestra from 1988 to 2000. It was during his tenure with the orchestra that the British magazine Gramophone applauded his impact on the artistic standard of the orchestra: ‘Yoel Levi has built a reputation for himself and for his orchestra that is increasingly the envy of the big five American counterparts in New York, Philadelphia, Cleveland, Boston and Chicago.’ This sentiment was seconded with the nomination of the Atlanta Symphony Orchestra as "Best orchestra of the Year" for 1991/92 at the First Annual International Classical Music Awards.

Similarly, Yoel Levi has held positions with several European orchestras, where he has consistently raised performances to new and critically acclaimed levels. Having been Principal Conductor of the Brussels Philharmonic (2001 to 2007) Yoel Levi was appointed Principal Conductor of the Orchestre National d'Ile de France in 2005, a post he held until 2012, giving regular concerts in Paris, the Ile de France area and increasingly taking the orchestra on tour outside France to Spain, Eastern Europe and London, where the media praised the orchestra as being one of the most inspiring and frequently engaged orchestras in Europe. He was appointed music director of the KBS (Korean Broadcasting System) Symphony Orchestra and also take up the position of principal conductor. His two-year term began in January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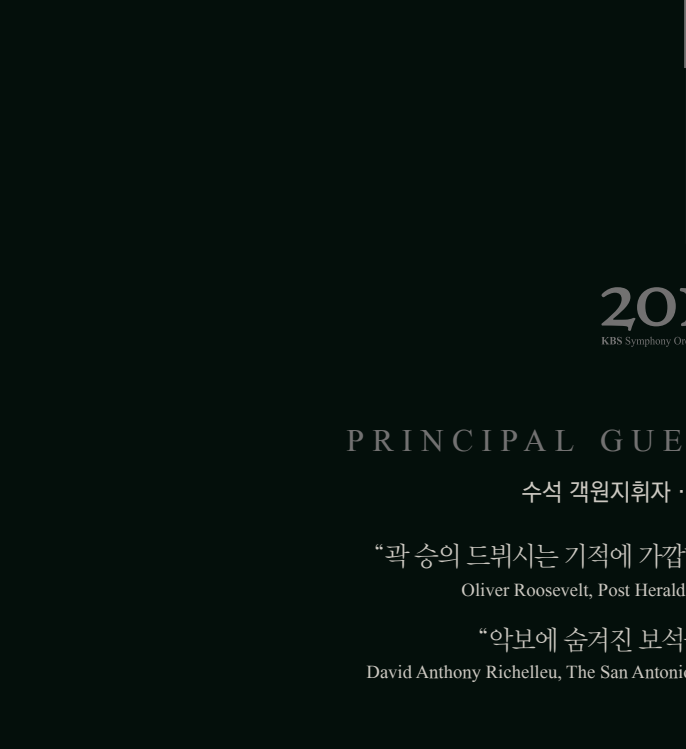
Yoel Levi's engagements as guest conductor take him all over the world to conduct orchestras in London, Paris, Berlin, Prague, Budapest, Rome, Frankfurt, Munich, Copenhagen, Stockholm, Israel, Korea and Japan. In North America, he has conducted the New York Philharmonic and the orchestras of Boston, Philadelphia, Cleveland, Chicago, Los Angeles, Pittsburgh, San Francisco, Washington, Minnesota, Toronto and Montreal amongst others.

He is also the first Israeli to serve as Principal Guest Conductor of the Israel Philharmonic Orchestra with which he has given tours of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as well as a special concert celeb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State of Israel. Other recent tours include an extensive tour of New Zealand with the New Zealand Symphony Orchestra and highly acclaimed concerts in Spain with the Orchestre de Paris. Yoel Levi is frequently invited to conduct at special events such as the Nobel Prize Ceremony at the head of the Stockholm Philharmonic Orchestra.

Ever since his 1997 debut in the orchestra pit at the Teatro Comunale in Florence conducting La Fanciulla del West, Yoel Levi has devoted a large part of his activities to the Opera repertoire conducting Carmen at the Lyric Opera of Chicago, The Makropulos Case by Janacek in Prague, Puccini's Edgar with the Orchestre National de France. At the ASO, he conducted Mozart's The Magic Flute, The abduction of the Seraglio, and Bartok's Bluebeard's Castle. With the Brussels Philharmonic, Yoel Levi performed Puccini's Tosca, La Traviata and Madame Butterfly and recent performances have included Tosca during the Puccini festival in Torre de Lago, Italy. In France he has conducted Poulenc's Dialogues des carmelites, Nabucco at the Stade de France for 60,000 people, with live television broadcast in Europe. Others performances have included Aida, Elixir of Love, Hansel and Gretel and La Boheme, amongst others.

In 1997 Yoel Levi was awarded an honorary Doctor of Fine Arts Degree by Oglethorpe University in Atlanta and also gave the commencement address. In June 2001 he was named “Chevalier de l'Ordre des Arts et des Lettres” by the French Government.

Born in Romania, Yoel Levi grew up in Israel where he studied at the Tel Aviv Academy of Music, where he received a Master of Arts degree with distinction, and The Jerusalem Academy of Music under Mendi Rodan. He also studied with Franco Ferrara in Siena and Rome, with Kirill Kondrashin in the Netherlands and at the Guildhall School of Music and Drama in London.



PRINCIPAL GUEST CONDUCTOR

수석 객원지휘자 · 광 승 Sung Kwak

“광 승의 드뷔시는 기적에 가깝다.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한다.”

Oliver Roosevelt, Post Herald, Birmingham, Alabama, USA

“악보에 숨겨진 보석들을 찾아 들려준다.”

David Anthony Richelleu, The San Antonio Express-News, San Antonio, Texas, USA

한국의 대표적인 마에스트로 광 승은 열여섯 살부터 KBS교향악단, 예그린악단, 서울시향에서 트럼펫 주자로 활동하였다. 메네스 음대 수석 졸업을 거쳐 뉴욕의 아메리칸 발레단 지휘자로 데뷔해, 뉴욕 시티센터 조프리 발레단, 에글레프스키 발레단에서 지휘자로 활동했으며 애틀랜타 심포니 부지휘자,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부지휘자, 오스틴 심포니 상임지휘자, 오리건 선리버 뮤직 페스티벌 예술감독을 지냈다. 국내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고문 및 음악감독, KBS교향악단 수석 객원지휘자 등을 역임하였고, 2008년부터 대구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도 취임해 활동하였다.

로터데일 필하모닉, 잭슨 심포니, 샌안토니오 심포니 등 26개 미국의 주요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객원 지휘했으며,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조지안 심포니(조지아 트빌리시), 카스티야 레온 심포니카 오케스트라(스페인), 라이니쉬 필하모닉(독일), 인스부르크 심포니(오스트리아), 오푸남 오케스트라(멕시코), 밴쿠버 심포니(캐나다), 큐슈 심포니(일본), 대만 국립심포니, 한국 국립교향악단(KBS 교향악단 전신), 한국 국립오페라단, 서울시향, 북한 국립심포니, KBS교향악단 등 세계 유수의 교향악단으로부터 객원지휘자로 꾸준히 초청 받아 왔다.

지휘자로서의 활동 외에도 젊은 음악인 양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텍사스 대학, 메네스음대, 뉴욕 퀸즈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특임교수 및 베네수엘라 엘 시스템아 지휘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1992년부터 현재까지 그가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전문 지휘자 마스터 클래스에는 라틴 아메리카 전역은 물론 유럽 등 전 세계의 젊은 지휘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그는 한 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엄격한 지휘자로 정평이나 있다. 그만큼 견고하고 균형 잡힌 연주와 작품성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가능케 한다. 그는 클래식 음악의 풍부하고 깊이 있는 감동을 추구하기 위하여 변함없는 열정을 다하고 있다.

2014년부터 마에스트로 광 승은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KBS교향악단의 수석 객원지휘자로 무대에 올라, 여유와 관록이 묻어나는 지휘로 단원들로부터 최상의 기량과 사운드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Sung Kwak, one of Korea's leading conductors, began performing the trumpet at the age of sixteen, joining the KBS Symphony Orchestra, the Yegreen Troupe, and the Seoul Symphony Orchestra. After graduating from the Mannes College of Music with honors, Maestro Kwak debuted as the conductor of the American Ballet Theatre Orchestra in New York. Since then, he stood on numerous podiums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New York City Center's Joffrey Ballet (1970-1977), New York's Eglevsky Ballet (1975-1977), the Atlanta Symphony Orchestra as Assistant Conductor (1977-1979), the Cleveland Orchestra as Assistant Conductor (1980-1993), the Austin Symphony Orchestra as Music Director (1983-1996), the Sunriver(Oregon) Music Festival as Artistic Director (1983-1993). In Korea, he has served as Music Director of the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96-2003), Music Director of the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2002-2003), and chief and guest conductor of the KBS Symphony Orchestra (2004-2006), and as Music Director and Chief Conductor at the Daegu Philharmonic Orchestra since 2008.

Maestro Kwak has appeared as a guest conductor with numerous American orchestras, including the orchestras of San Antonio, Alabama, Nashville, Knoxville, Oakland, Houston, Fort Worth, Washington National, Dallas, Jacksonville, Colorado, El Paso, Long Island, Delaware, Seattle, Hudson Valley, Oregon, St. Louis, San Francisco, Chicago, Atlanta, New Orleans, and Buffalo. He has also been invited to conduct leading orchestras around the world, such as the Leningrad (St. Petersburg) Philharmonic Orchestra, Georgia State Symphony Orchestra, Orquesta Sinfonica de Castilla y Leon of Spain, Rheinische Philharmonie of Germany, Innsbruck Symphony Orchestra of Austria, National University Philharmonic of Mexico (OFUNAM), Vancouver Orchestra of Canada, Kyushu Symphony Orchestra of Japan, National Symphony Orchestra of Taiwan, National Symphony Orchestra of Korea, Korea National Opera, Seoul Philharmonic, and State Symphony Orchestra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estro Kwak has also been invited to conduct at special occasions. He conducted at the opening ceremonial concert of the Sejong Art Center (1978), Opening Ceremony of the Main Olympic Stadium in Seoul, Korea (1987), in a special Pan-Korean Unification Concert in Pyongyang, North Korea (1990). In 1995, he conducted performances in Paris with the Simon Bolivar Orchestra (Venezuela) for the celebration of UNESCO's fiftieth anniversary. In the following year, he conducted in a special commemorative concert to celebrate the participation of both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Atlanta Olympic. In 2000, he conducted the united orchestra of South and North Korea in a memorable concert..

Maestro Kwak has led the KBS Symphony Orchestra in multiple occasions in the past, most notably in several international tours: in 1986, he too the ensemble on a five-city tour of Japan; in 1984, on a five-country tour of Southeast Asia; and in 1978, on a 23-city tour of the United States. With the Busan Philharmonic, he toured four cities in the United States in 1997; three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2000; and three Chinese cities in 2002.

In addition to his active conducting career, Maestro Kwak has dedicated himself in the training of young musicians. He has taught at the Music School of the University of Texas in Austin, Mannes College of Music in New York, and the Queens College of New York. Currently he is a professor at the Keimyung University, while also serving as Director of the Conducting Master Course for Professional Conductors in Caracas, Venezuela.

Maestro Kwak is known for his rigorous discipline, dedication, and scholarly approach to music, which are evident in his solid and balanced performances. He has been appointed as the Principal Guest Conductor of the KBS Symphony Orchestra in 2014. With his undying passion to inspire through music, Maestro Kwak is an important addition to the Orchestra.

KBS SYMPHONY ORCHESTRA

(재)KBS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클래식 음악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성장하였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 이후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등 세계 정상 지휘자들이 상임지휘를 맡으며 국내 정상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였고 2012년 9월, KBS교향악단은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해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정통 클래식 음악회로 매년 20회 이상 열리는 KBS교향악단 대표 프로그램인 정기연주회를 포함하여 특별 연주회, 기업 음악회, 어린이음악회,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등 90여 회의 기획 공연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향곡에서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편성된 레퍼토리로 청중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백건우, 조수미, 장영주, 장한나, 정명화 등 국내 최고의 연주자들과 미샤 마이스키, 피터 야블론스키, 로스 로메로스 등 세계 정상급 솔리스트들과의 협연을 통해 교향악단의 인지도를 더욱 높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KBS교향악단은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1979년 미국 전역 순회연주를 비롯하여 동남아 5개국 순회연주, 일본 6개 도시 순회 연주, NHK초청 일본 4개 도시 순회연주, 일본 기타큐슈 국제 음악제, 히로시마 교향악단 합동공연과의 UN 창설 50주년 및 광복 50주년 기념 뉴욕 UN총회장 연주회, 2002년 차이나 필과의 서울, 베이징, 상하이 교환연주회를 통해 한국교향악단의 대외 이미지를 고양시켰다. 또한, 남북 평화 사절단으로 2000년 8월에는 북한의 조선국립교향악단과 서울에서 역사적인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를 가졌고, 2002년 9월에는 평양에서 한 번 더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2010년 10월 UN 창설 65주년 기념콘서트를 비롯한 미국순회연주, 2013년 7월에는 중국국가교향악단 특별 합동연주회 등 문화사절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바그너 탄생 200주년 기념 콘서트, 정전 60주년 기념 특별연주회, 유네스코 등재 기념 아리랑 대공연 등 시의성 있는 굵직한 대형 음악회를 연달아 열어 문화예술계로부터 기대와 화제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시도도 계속 이어져 '클래식과 한복의 만남', '국립 현대미술관의 빌 비올라 트리스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과의 협업을 시도하여 클래식 음악의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2014년, 세계적인 지휘자 요엘 레비가 음악감독을 맡으며 KBS교향악단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섬세하면서도 역동적인 요엘 레비의 지휘는 KBS교향악단 단원들의 기량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더욱 폭넓은 연주 활동과 안정적인 앙상블, 깊이 있는 사운드로 청중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향악단으로 성장할 것이다.

Founded in 1956, the KBS Symphony Orchestra has been a leader in Korea's musical life. Ever since its inaugural season with Maestro Won-shik Ihm, the Orchestra has continued to grow under the leadership of great musical minds such as Yeon-taek Hong, Kyung-su Won, Othmar Mäga, Myung-whun Chung, and Dmitri Kitayenko. In September 2012, the KBS Symphony Orchestra became a foundation. Now equipped with a committee of experts in the field of arts administration, the Orchestra is ready to take a new step and transform its tradition of artistic excellence into even greater achievements.

The Orchestra plays about 90 concerts a year: in addition to the main subscription concerts that are offered more than 20 times every year, Young People's Concerts, K-Lover outreach concerts, and various special-themed and corporate concerts fill its calendar. The roster of artists who have performed with the Orchestra includes preeminent musical personalities such as Kun-Woo Paik, Sumi Jo, Sarah Chang, Han-na Chang, Myung-wha Chung, Mischa Maisky, Peter Jablonski, and Los Romeros.

The Orchestra has performed extensively abroad. Some of its performances overseas include: a tour of the major cities in the United States in 1979; the five-country tour in Southeast Asia; the six-city Japan tour; the four-city tour in Japan on NHK's invitation; and the Kitakyush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in Japan. In October 2010, it toured in the United States once again to celebrate the 65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The Orchestra has also collaborated with ensembles outside the country, fulfilling its role as a cultural ambassador. These concerts include: a joint performance with the Hiroshima Philharmonic Orchestra in celeb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5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of Korea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Hall; and exchange concerts with the China Philharmonic Orchestra in Seoul, Beijing, and Shanghai in 2002. In addition, in August 2000 and September 2002, the Orchestra performed with the State Symphony Orchestra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a historical joint concert in Seoul and in Pyongyang. Most recently, the special co-performance with the China National Symphony Orchestra was held in July 2013.

The Orchestra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cultural life of Korea with its thoughtful programming, which reflects upon cultural and political issues at home and abroad. These programs include Wagner's 200th Anniversary Concert, a special concert to commemorate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the great "Arirang" concert in celebration of the folk melody's listing on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With concerts such as the "Encounter between Classics and Hanbok (Korean traditional clothing)" concert and the "National Contemporary Art Museum's Bill Viola Tristan" project, the Orchestra's effort to expand its scope continues.

In 2014, Maestro Yoel Levi, one of the leading podium personalities in the world, began his tenure as Music Director. Under Maestro Levi's commanding musicianship, the Orchestra's musical accomplishments will heighten even further. The KBS Symphony Orchestra stays committed to reaching and inspiring audiences through musical excellence.

사 장	박인건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수석 객원지휘자	요엘 레비 곽 승
-----	-----	--------------------------	--------------

단 원	악장	전용우				
	부악장	최병호				
	제1바이올린	반선경(수석, 수습) · 김대훈(부수석) · 박종홍 · 이 윤 양 현 · 김혜은 · 황미령 · 김우현 · 김희진 · 권혁진 최혜진 · 강내윤 · 오지은 · 유지인 · 이소윤	오보에	이지민(수석) · 임은희(부수석) 김종아(부수석) · 윤혜원 · 조성호		
	제2바이올린	고주철(수석) · 방영호(부수석) · 임정연(부수석) 한순심 · 채은주 · 노명희 · 이해영 · 김미연 유주현 · 이윤경 · 김진아 · 박소현 · 박정원	클라리넷	송정민(부수석) · 유형직 · 신현각		
	비올라	한벨리(부수석) · 진 덕(부수석) · 장정운 · 고은숙 김정신 · 김성태 · 박세란 · 최진미 · 김지우 유민형 · 임나유 · 석지영	바순	윤상원(수석) · 이상돈(부수석) 고주환(부수석) · 김삼기 · 최봉락		
	첼로	김우진(수석) · 윤여훈(부수석) · 이화준 양윤정 · 김현정 · 김희경 · 김소영 · 김희연 양재원 · 정세은 · 장현경	호른	정종진(수석) · 알렉산더 아키모프(부수석) 권오성 · 신현석 · 김만식 · 김지환		
	콘트라베이스	이창형(수석) · 박정호(부수석) · 김상훈 이도용 · 성백준 · 강래하 · 양현주 · 유주연	트럼펫	정용균(부수석) · 김승헌		
	플루트	안명주(수석) · 김태경(부수석) · 이철호 · 전서영	트럼본	박홍배(부수석) · 김용석 · 정다운		
			튜바			
			팀파니	이영완(수석)		
			타악기	윤창덕(부수석) · 김주덕 · 장세나		
			피아노	이영이		
			하프	나현선		

사무국	사무국장	정구성						
	공연기획팀	팀장 김원재 차장 이상현 과장 이한신 류재은 김지민	홍보마케팅팀	팀장 손대승 과장 조병근 정유진	경영관리팀	팀장 오창훈 차장 손유리 유연철 심은호 김정운	공연지원파트	악보 안성원 악기 유재식 박시연

Preview of the KBS Symphony Orchestra's 2015 Season Subscription Concerts

KBS교향악단 2015년 정기연주회 미리보기

2015년 시즌, 음악감독 요엘 레비와 함께 펼쳐나갈 그 역동적인 음악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의욕적인 도전과 실험의 2014년 시즌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5년, 안으로는 내실을 다지고 밖으로는 한국 교향악의 지평을 넓히는 약진하는 한 해를 열어갑니다. 제700회 정기연주회를 맞이하는 기념적인 해, KBS교향악단과의 동행은 더욱 뜻깊은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The KBS Symphony Orchestra and Music Director Yoel Levi invite you to the 2015 season. The 2014 season was a year filled with experiments and innovations, and now, the new season will be a year of great strides, achieving stability internally and expanding the prospect of Korean symphonic music externally. Join the KBS Symphony Orchestra in its special year, as it plays its 700th subscription concert.

19세기 교향곡의 흐름을 따라서

KBS교향악단은 올 해 19세기의 교향곡 작품을 중심으로 정통 클래식 음악 레퍼토리를 탐구합니다. 치밀한 주제 전개와 탄탄한 구조가 돋보이는 베토벤과 브람스의 교향곡과 함께 서정과 낭만이 가득한 슈만, 드보르자크의 교향곡을 선곡했습니다. 또한 표제와 프로그램으로 풍성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와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자국의 민속음악 선율을 재료로 새내려간 시벨리우스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그리고 20세기를 향하는 말러의 작품으로 다채롭고 풍성한 교향악의 세계를 펼칩니다.

Tracing the 19th-century Symphonic Music

This season, the KBS Symphony Orchestra surveys the 19th-century symphonic repertoire. To be played are Beethoven symphonies and Brahms symphonies,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orough development of subjects and solid musical structures. Symphonies by Schumann and Dvořák are infused with romance and lyricism. Also played are a tone poem by Richard Strauss and Berlioz's *Symphonie fantastique*, full of imaginative programs and storytelling. Symphonies by Sibelius and Tchaikovsky display each composer's own national music idioms, while Mahler's pioneering symphonies look toward the twentieth century.

희망과 위로를 주는 음악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이 담긴 작품들을 살펴봅니다. 소프라노와 바리톤 독창,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은 그가 직접 선별한 독일어 성서 가사에 음악을 붙인 곡입니다. 말러는 그의 삶을 점철했던 고통과 고뇌를 교향곡 제2번 '부활'을 통해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두 작품 모두, 삶과 죽음,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통해 우리에게 위안을 건넵니다. 요엘 레비가 이끄는 KBS교향악단의 섬세한 필치, 정성급 독창진과 연합합창단의 정제된 노래로 음악이 주는 위로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Music that soothes and inspires

We turn to music that reflects upon the life and death of men. Brahms expressed his own religious contemplation in *A German Requiem*, of which texts were taken from the Lutheran Bible. Mahler sublimated the suffering of his life into art in his *Symphony No. 2, "Resurrection"*. These two works comfort our souls by guiding us toward the hope of eternal life beyond death. The KBS Symphony Orchestra has invited internationally acclaimed soloists, and with the chorus' refined ensemble guided by Maestro Yoel Levi, these majestic programs will surely move your heart.

비르투오조 시리즈

거장 연주자들이 빛어내는 진정한 비르투오시티를 만나봅니다. 2월에는 화려한 음반 목록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니콜라이 데미덴코가 프로코피예프의 마지막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5월에는 세련된 해석과 자연스러운 음악으로 '젊은 거장'이라는 찬사를 받는 바이올리니스트 길 샤함의 들려주는 멘델스존 협주곡을, 10월에는 '노래하는 첼로'라는 별명을 가진 첼리스트 알반 게르하르트가 프로코피예프의 〈신포니아 콘체르탄테〉를 연주해 압도적인 기교와 진한 감동이 어우러진 협주곡 무대를 만듭니다.

Virtuoso Series

Experience dazzling virtuosity in concerts by great musical masters. In February, the Russian pianist Nikolai Demidenko, well-known in Korea with his acclaimed recordings, plays Prokofiev's last Piano Concerto. In May, the charismatic Gil Shaham, one of the foremost violinists of our time, plays the Mendelssohn Violin Concerto. In October, Alban Gerhardt, who makes the cello sing with under his hands, will bring Prokofiev's *Sinfonia Concertante* to life with his tantalizing virtuosity and distinctive interpretation.

떠오르는 영 아티스트, 이들을 주목하라

뛰어난 기교, 아름다운 외모로 주목받는 미녀 트럼펫터 티네 텅 헬세스, 201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를 차지한 바이올리니스트 이타마르 조르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공동 우승한 하오첸 장, 그리고 음악과 그림 모두에서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은 피아니스트 로만 라비노비치가 한국을 찾아옵니다. 또한 '영재'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연주자들과 함께 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윤희와 고수지, 한국계 미국인 연주자 에스더 유가 협연하는 세 번의 바이올린 협주곡 무대가 기다립니다. 특히, 고수지는 2008년 건국 60주년 기념음악회 이후로 7년 만에, 김윤희는 2009년 열일곱 살의 나이로 KBS정기연주회 최연소 솔리스트로 협연한 지 6년 만의 만남입니다.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지휘자를 거쳐 성장을 거듭해 온 연주자들의 더욱 밝은 미래를 점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Young Rising Stars

The Nordic trumpet sensation Tine Thing Helseth, the 2011 Tchaikovsky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 winner Itamar Zorman, the Van Cliburn-winning pianist Haochen Zhang, and the Israeli pianist and painter Roman Rabinovich join the KBS Symphony Orchestra in the 2015 season. Also joining are the young musical talents of Korea, who are building reputations internationally. Violinists Yoon-Hee Kim and Susie Kho, as well as the Korean-American violinist Esther Yoo, take our stage. Susie Kho returns after seven years since the celebration concert of the 60th Anniversary of Republic of Korea in 2008, while Yoon-Hee Kim rejoins after six years since her appearance with the KBS Symphony Orchestra in 2009 at the age of seven as the youngest soloist ever. Meet the young artists who are on their way to joining the constellation of musical stardom.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객원 지휘자와의 만남

KBS교향악단의 수석 객원지휘자인 곽 승을 비롯해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로열 스코틀랜드 국립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를 역임한 거장 지휘자 발터 벨러, 유럽의 유명 악단을 거쳐 미국 밀워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명예지휘자가 된 안드레아스 델프스, 세계 3대 지휘 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샤오치아 뤼가 KBS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춥니다. 객원 지휘자들의 다양한 업적과 음악관을 바탕으로 빛어내는 KBS교향악단의 새로운 음악적 면모를 보여줄 것입니다.

World-renowned guest conductors

Joining our podium this season are the KBS Symphony Orchestra's own Principal Guest Conductor Sung Kwak; the acclaimed Walter Wetter, who has led the Royal Liverpool Philharmonic, the Royal Philharmonic Orchestra, and the Scottish National Orchestra with great musical leadership; and Andreas Delfs, conductor Laureate of the Milwaukee Symphony Orchestra and Principal Conductor of the Honolulu Symphony. The guest conductors will bring out fresh interpretations and sound from the KBS Symphony Orchestra.

690TH 도약하는 또 한 걸음, 음악의 환상 속으로

Another Leap Forward, Into Musical Phantasmagoria

작년 한 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인 바 있는 KBS교향악단과 음악감독 요엘 레비가 2015년, 더욱 약동하는 한 해를 열어갑니다. 새로운 시즌의 문을 여는 첫 무대는 우리 작곡가의 서곡을 시작으로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꾸밈니다. 201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를 수상하며 세계를 무대로 관객과 만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타마르 조르만이 협연자로 올라 탄탄한 기교와 짙은 감성에 기반한 바이올린의 명인기를 보여주리라 기대합니다. 여기에 프랑스의 19세기 작곡가 베를리오즈가 한 예술가의 삶과 실연, 그리고 환각의 세계를 그려낸 <환상교향곡>이 이어집니다. 장례식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분노의 날, 심판의 날' 선율이 들려오는 마지막 악장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한 웅장한 사운드와 극적인 표현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15년, KBS교향악단이 더욱 힘찬 걸음을 내딛습니다.

The KBS Symphony Orchestra and Music Director Yoel Levi embark on another season that is certain to be exhilarating. The New Year's first stage opens with a prelude by a Korean composer. Tchaikovsky's Violin Concerto played by the violinist Itamar Zorman, winner of the 2011 Tchaikovsky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 will set the tone for a thrilling new season. The next number, Berlioz's Symphonie fantastique, a semi-autobiographical tale of obsessive love and hallucination, is the symphonic revolution of the 19th century. The church bell proclaiming death followed by the final dance of the witches combined with the Dies irae will leave you enchanted in the world of musical phantasmagoria.

지휘 Conductor – 요엘 레비 Yoel Levi



지휘 요엘 레비 Yoel Levi
바이올린 이타마르 조르만 Itamar Zorman

1. 16 (금) 오후 7시 30분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Friday, January 16, 7:30pm | Seoul Arts Center Concert Hall

1. 17 (토) 미정 | 안양아트센터
Saturday, January 17, TBD | Anyang Arts Center

티켓 R 80,000 S 60,000 A 50,000 B 30,000 C 20,000

한국 작곡가 | 미정
Korean Composer | TBD

차이콥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P. I. Tchaikovsky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35

베를리오즈 | 환상교향곡, 작품 14
H. Berlioz | Symphonie Fantastique, Op. 14

바이올린 Violin – 이타마르 조르만 Itamar Zorman



- 이스라엘 음악원, 줄리아드 음악대학, 맨해튼 음악원 졸업
-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상 수상(2013)
- 차이콥스키 국제음악콩쿠르 1위 없는 2위 수상 (2011)
- 프라이부르크 콩쿠르(2010), 줄리아드 베르크 콘체르토 콩쿠르(2011) 우승
- 이스라엘 필하모닉, 폴란드 라디오 체임버, 도쿄 심포니, 바덴바덴 필하모닉,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등 협연
- 이스라엘 체임버 프로젝트 창립 멤버, 라이샌더 피아노 트리오로 활동

- Studied at the Jerusalem Academy of Music and Dance, Juilliard School, Manhattan School of Music.
- Recipient of the 2013 Avery Fisher Career Grant.
- Winner of the 2011 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
- Winner of the 2010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 of Freiburg and the 2011 Juilliard Berg Concerto Competition.
- Soloist with the Israel Philharmonic Orchestra, Tokyo Symphony, Polish Radio Chamber Orchestra, Philharmonie Baden Baden, and St. Petersburg Philharmonic, among others.
- Founding member of the Israeli Chamber Project; member of the Lysander Piano Trio.

691ST 비르투오조를 만나다 I 익숙함 속에 새로움 - 니콜라이 데미덴코

Meet Virtuosos I The New Amongst the Familiar – Nikolai Demidenko

2015년 KBS교향악단이 준비한 비르투오조와의 만남, 그 첫 무대의 주인공은 피아니스트 니콜라이 데미덴코입니다. 쇼팽, 부조니, 메트너 등의 음반으로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 반해 실제 공연에서의 만남은 오래 미뤄져왔습니다. 데미덴코는 유명 작곡가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알리고 생소한 작곡가들의 이름을 클래식 음악의 장에 등장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협주곡 5번을 택하여 피아노의 타악기적 매력을 부각시키고 고전적 형식미와 느린 악장의 절절한 감성 또한 놓치지 않는 연주를 들려줄 것입니다. 이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한 지휘자 안드레아스 델프스가 지휘봉을 잡고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제6번을 감상합니다. 드보르자크의 후기 교향곡에 밀려 자주 연주되지는 않지만, 열정과 패기, 민족적 정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며 후기 명작 교향곡들의 탄생을 예고하는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The concert opens with Musica Celestis by Aaron Jay Kernis, one of the most prolific composers of our time. Like its title, Musical Celestis is an ethereal work, enveloping our ear and senses with gentle texture created by the tender wash of the strings. The first virtuoso artist of the season is the pianist Nikolai Demidenko. Acclaimed for his recorded albums of Bach-Busoni, Chopin, and Medtner, Demidenko is an artist Korean audiences have long been waiting to meet. He is known for introducing less familiar works by familiar composers or new works by lesser-known composers. In this program, he plays Prokofiev's Piano Concerto No. 5, in which percussive use of the piano, classical construction, lyricism of the slow movement, all blend. Guest conductor Andreas Delfs leads the podium in Dvořák's Symphony No. 6. A less frequently played work compared to his later symphonies, Dvořák's Symphony No. 6 is however a bold and passionate work which also signals the birth of the Czech national style in the composer's oeuvre.

지휘 Conductor - 안드레아스 델프스 Andreas Delfs



- 함부르크 음악원, 줄리아드 음악대학 졸업
- 세인트 폴 챔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예술고문, 하노버 오페라극장 및 베른 오페라극장 음악감독, 피츠버그 심포니 전임지휘자 역임
-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런던 필하모닉,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취리히 톤halle 오케스트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LA 필하모닉 등 지휘
- 현. 미국 밀워키 심포니 오케스트라 명예지휘자

- Studied at the Hamburg Conservatory and the Juilliard School.
- Music Director and artistic consultant of the Saint Paul Chamber Orchestra; General Music Director of Staatsoper Hannover, Germany (1995-2000); Music Director of the Bern Opera; resident conductor of the Pittsburgh Symphony (during the tenure of Lorin Maazel).
- Conducted numerous orchestras including Frankfurt Radio Symphony Orchestra, London Philharmonic, Leipzig Gewandhaus Orchestra, Tonhalle Orchestra of Zurich, Philadelphia Orchestra, Los Angeles Philharmonic, among others.
- Currently Conductor Laureate of the Milwaukee Symphony Orchestra.

지휘 안드레아스 델프스 Andreas Delfs
피아노 니콜라이 데미덴코 Nikolai Demidenko
-

2. 12 (목) 미정

Thursday, February 12, TBD

2. 13 (금) 오후 7시 30분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Friday, February 13, 7:30pm | Seoul Arts Center Concert Hall

-

티켓 R 60,000 S 50,000 A 40,000 B 30,000 C 20,000

제이 커니스 | 무지카 셀레스티스 (천상의 음악)
A. Jay Kernis | Musica Celestis

프로코피예프 | 피아노 협주곡 제5번, 작품 55
S. Prokofiev | Piano Concerto No. 5 in G Major, Op. 55

드보르자크 | 교향곡 제6번 D장조, 작품 60
A. Dvořák | Symphony No. 6 in D Major, Op. 60

피아노 Piano - 니콜라이 데미덴코 Nikolai Demidenko



- 그네신 음악원 및 모스크바 콘서바토리 졸업
- 몬트리얼 국제콩쿠르(1976) 및 차이코프스키 콩쿠르(1978)에서 입상
-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싱가포르 심포니,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중국 국가교향악단, 요미우리 니폰 심포니 등과 협연
- 메트너 피아노 협주곡 음반으로 그라모폰상 수상(1992)
- 2010 프랑스 MIDEM Special Chopin Award 신작상 수상
- 영국 서리대학 초빙 교수 역임 및 서리대학 명예박사 수여(2014)

- Studied at the Gnessin School of Music and at the Moscow Conservatory.
- Finalist at the 1976 Montreal and 1978 Tchaikovsky Piano Competitions.
- Solo appearances with the Moscow Radio Symphony Orchestra, London Philharmonic, London Symphony, Royal Philharmonic, and the St Petersburg Philharmonic.
- Winner of Gramophone Award 1992 for Weber & Medtner Piano Concerto recording.
- Winner of the MIDEM 2010 Special Chopin Award for a new recording.
- Visiting Professor and Honorary Doctorate from the University of Surrey(2014).

692ND 음악이 ‘영웅’을 말한다면... 베토벤 vs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Musical Heroes, Music by Heroes... Beethoven vs. Richard Strauss

음악이 들려주는 영웅의 모습, 베토벤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으로 만납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은 충실한 오케스트라 파트와 세밀한 짜임, 작곡가로서 열정과 개성을 전면에 드러낸 작품입니다. 또한 베토벤의 유일한 단조 협주곡으로, c단조로 시작해 마지막 악장에 이르러 C장조 코다로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들려줍니다. 실제로 베토벤은 이즈음 청각에 이상을 감지했는데 음악가로서의 절망, 그럼에도 굴하지 않는 자신 안의 영웅을 이 곡을 통해 일깨우는 듯합니다. 이어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교향시 〈영웅의 생애〉에서는 영웅이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업적을 남기고 은퇴하기까지를 음악으로 서술합니다. 슈트라우스의 또 다른 영웅 이야기 〈돈키호테〉에서 실패한 영웅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았다면 이 작품 〈영웅의 생애〉에서는 음악 곳곳에 등장하는 슈트라우스 다른 작품의 선율을 찾아내는 ‘숨은 선율 찾기’의 재미와 함께 험한 팀파니 소리로 들려오는 영웅의 승리에 참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Beethoven's Piano Concerto No. 3 and Strauss's Symphonic Poem "Ein Heldenleben (A Hero's Life)" both speak of heroes. Beethoven's Concerto is marked by orchestration that challenges the capabilities of the instruments at the time, as well as a full sound that separates it from piano concertos written previously. Moreover, it is Beethoven's only concerto that begins in a minor key; however, it heroically finds its way to a C major key in the last movement. Beethoven was losing his hearing around the time of composing this concerto, and it indeed reflects the hero who possesses an undying will to compose nevertheless. Richard Struass's allegedly autobiographical tone poem, "Ein Heldenleben", tells the story of a hero, his triumphs over enemies at the battlefield, achievements of peace and intelligence, and retirement. On the contrary to the solitary and failed hero of Don Quixote, "Ein Heldenleben" depicts a triumphant hero, and his appearance is characteristically accompanied by the trumpet.

지휘 Conductor - 요엘 레비 Yoel Levi



지휘 요엘 레비 Yoel Levi
피아노 이고르 카멘스 Igor Kamenz

3. 26 (목) 미정 | 군포문화예술회관
Thursday, March 26, TBD | Gunpo Culture & Arts Center

3. 27 (금) 오후 7시 30분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Friday, March 27, 7:30pm | Seoul Arts Center Concert Hall

3. 28 (토) 미정 | 천안예술의전당
Saturday, March 28, TBD | Cheonan Arts Center

티켓 R 60,000 S 50,000 A 40,000 B 30,000 C 20,000

힌데미트 | 베버 주제에 의한 교향적 변용
P. Hindemith | Symphonic Metamorphosis of Themes by Carl Maria von Weber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c단조, 작품 37
L. v. Beethoven | Piano Concerto No. 3 in c minor, Op. 37

슈트라우스 | 영웅의 생애, 작품 40
R. Strauss | Ein Heldenleben Op. 40

피아노 Piano - 이고르 카멘스 Igor Kamenz



- 비탈리 마굴리스, 세르주 첼리비다케 사사
- 뮌헨 헤라클레스홀, 함부르크 뮤직홀, 브레멘 글로케홀, 베를린 콘서트홀, 케네디센터,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등에서 독주 및 협연
- 쉘레스비히 홀스타인 뮤직 페스티벌, 모스틀리 모차르트 페스티벌, 라인가우 뮤직 페스티벌 등 다수 참여
- 독일 웹스 클래식스 레이블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음반 발매

- Studied with Vitaly Margulis and Sergiu Celibidache.
- Performed at Munich Herkulessaal, Musikhalle in Hamburg, Bremen Glocke, Liederhalle Stuttgart, Konzerthaus Berlin, Kennedy Centre in Washington DC, Mozarteum Salzburg.
- Performed at the Schleswig Holstein Music Festival, Mostly Mozart Festival of the Lincoln Center and Rheingau Music Festival, among others.
- A solo CD with four Sonatas by Beethoven(Deutsch OEHMS Classics).

693RD 봄, 열정과 도취의 음악 속으로... Spring, Music of Passion and Intoxication

4월, 곳곳에 만연한 봄기운처럼 음악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체코에 찾아온 진정한 봄, 그 이듬해였던 1990년에 열린 ‘프라하 봄 음악제’에서는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이 체코인의 가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한 체코의 자연 풍경을 정교하고도 애정 어리게 묘사한 곡으로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제2곡 ‘몰다우(체코어로는 블타바)’를 감상합니다. 이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신에 바이올리니스트 김윤희의 협연으로 생상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을 선보입니다. 생상스가 남긴 바이올린 협주곡 세 곡의 마지막 작품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날은 로열 필하모닉 상임지휘자를 지내며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한 거장 지휘자 발터 벨러가 포디움에 올라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바이올리니스트 김윤희와의 인연을 이어갑니다. 후반부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가운데 가장 역동적이며 화려한 리듬의 향연을 펼치는 교향곡 제7번을 연주합니다. 올 봄, 세상에 충만한 생명력이 힘찬 음악과 만나 어우러집니다.

An air of spring breathes a fresh air to music, too. Concert opens with “Vltava” from Smetana’s Má Vlas, which resounded across the Czech Republic in 1990 as the country greeted its own spring. Then, Yoon-Hee Kim, whose international reputation is growing rapidly, plays Saint-Saëns Violin Concerto No. 3. The Austrian conductor Walter Weller leads the podium to collaborate with Yoon-Hee Kim. The concert closes with Beethoven’s Symphony No. 7, the most energetic and dynamic of all Beethoven symphonies. Be ready to be filled with new energy and vitality of spring with this program.

지휘 Conductor - 발터 벨러 Walter Weller



- 뮌헨국제음악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1위(1959)
-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데뷔(1966)
- 런던 심포니, BBC 심포니,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로열 콘서트허바우 등 지휘
-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음악감독, 로열 필하모닉 상임지휘자, 바젤 극장 종합음악감독, 로열 스코틀랜드 국립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현. 명예지휘자)
- 베토벤 소사이어티 메달, 모차르트 최고해석상 등 수상
- 현.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 명예지휘자, 발렌시아 오케스트라 부감독

- Made debut as a conductor at the Vienna Philharmonic.
- Conducted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Philharmonia Orchestra, BBC Symphony Orchestra, Dresdner Staatskapelle, Leipzig Gewandhaus Orchestra, among others.
- Music Director and Artistic Director of the Royal Liverpool Philharmonic; Principal Conductor of the Royal Philharmonic Orchestra; General Music Director of the Basel Theater, and Chief Conductor of the Basel Symphony Orchestra.
- Garnered the Beethoven Society Medal (Austria) and the Mozart Interpretation Award (Salzburg).
- Currently, Conductor Emeritus of the Royal Scottish National Orchestra; Conductor Laureate to the Stuttgart Philharmonic Orchestra; Associate Director of the Orchestra of Valencia, Spain.

지휘 발터 벨러 Walter Weller

바이올린 김윤희 Yoon-Hee Kim

-

4. 29 (수) 오후 7시 30분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Wednesday, April 29, 7:30pm | Seoul Arts Center Concert Hall

4. 30 (목) 미정 | 부산문화회관

Thursday, April 30, TBD | Busan Cultural Cente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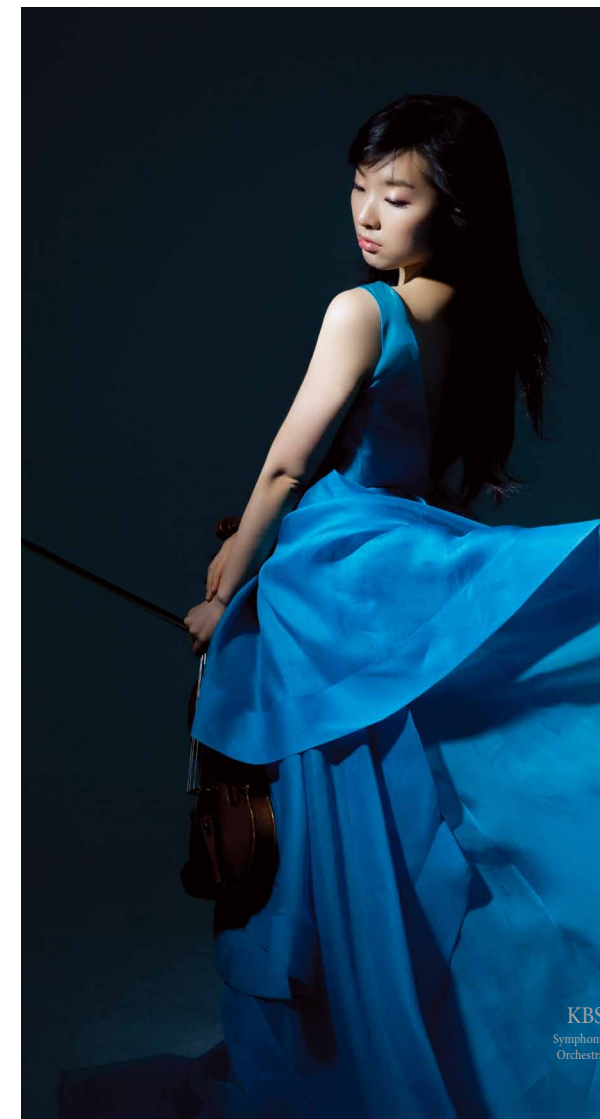
티켓 R 60,000 S 50,000 A 40,000 B 30,000 C 20,000

스메타나 |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블타바)
B. Smetana | Die Moldau(Vltava), Symphonic Poem ‘Má Vlast’

생상스 |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b단조, 작품 61
C. Saint-Saëns | Violin Concerto No. 3 in b minor, Op. 61

베토벤 | 교향곡 제7번 A장조, 작품 92
L. v. Beethoven | Symphony No. 7 in A Major, Op. 92

바이올린 Violin - 김윤희 Yoon-Hee Kim



- 4세에 빈 국립음악대학 최연소 입학
- 5세에 헝가리 사바리아 오케스트라 협연(1996)
- 노르웨이 트론헤임 심포니,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 몬테카를로 오케스트라 등과 최연소 협연
- 안드레아 포스타치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프리마 라 무지카 콩쿠르(7세), 피델리오 콩쿠르 우승
- 베오그라드 뮤직 페스티벌, 룩셈부르크 빌츠 페스티벌, 자그레브 사모보르 페스티벌 초청 연주

- Made orchestral debut with the Savaria Symphony Orchestra of Hungary in at the age of five.
- Started studying at the Vienna University for Music at the age of four.
- The youngest soloist to perform with the Stuttgart Philharmonic, Monte Carlo Philharmonic, Norway Trondheim Symphony orchestra, among others.
- First Prize at the Andrea Postacchini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Fermo, Italy; First Prize at Prima la Musica competition in Austria; winner at the Fidelio Competition in Austria.
- Invited to perform at the Belgrade Music Festival, the Wiltz festival in Luxembourg, Norway and Samobor Festival in Zagreb.

694TH 비르투오조를 만나다 II 바람을 타고 온 현의 노래 - 길 샤함

Meet Virtuosos II Songs on the String – Gil Shaham

싱그러운 초록이 대지를 감싸는 5월, 바람에 실려 온 현의 노래를 들어봅니다. 명징한 음색, 세련된 해석으로 주목받는 바이올리니스트 길 샤함이 지난 2010년 마리스 안손스 지휘의 로열 콘서트허바우와의 내한 공연에 이어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한국을 다시 찾아옵니다. 섬세하고 지적이면서 자연스러운 연주로 '젊은 거장'이라는 찬사를 받는 길 샤함의 더욱 깊어진 해석을 기대해 봅니다. 2부에서는 말러의 교향곡 5번을 연주합니다. 트럼펫의 어두운 도입부에 이어 세기의 전환기, 한 작곡가가 겪은 불안과 삶에 대한 고민이 무대 위로 쏟아져 나옵니다. 요엘 레비가 지휘하는 KBS교향악단의 섬세한 필치로 4악장 아다지예토에 이르면 하프가 펼치는 음의 용단 위에 새겨진 현의 노래를 통해 우리 사는 세상, 그 찰나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Listen for the songs carried by the May breeze. The charismatic Gil Shaham, who captured Korean audiences' hearts back in 2010 in a concert with Mariss Jansons, returns with the Mendelssohn Violin Concerto. Shaham has been praised as "the outstanding American violinist of his generation" by the Time magazine. Expect to be carried away by his delicate, intelligent, and passionate performance. The second half of the concert is Mahler's sweeping Fifth Symphony. The funeral march by trumpet in the introduction is followed by an intense surge of anxiety and fear that was prevalent at the time, but such negative emotions transform into positive ones at the end of the work. In the fourth movement, Adagietto, experience musical beauty escalated by its brevity and an extreme contrast of moods as the KBS Symphony Orchestra and Maestro Yoel Levi delicately paint many layers of human emotions on a musical canvas.

바이올린 Violin - 길 샤함 Gil Shaham

지휘 Conductor - 요엘 레비 Yoel Levi



지휘 요엘 레비 Yoel Levi
바이올린 길 샤함 Gil Shaham

5. 14 (목) 미정 | 오산문화예술회관
Thursday, May 14, TBD | Osan Arts Center

5. 15 (금) 오후 7시 30분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Friday, May 15, 7:30pm | Seoul Arts Center Concert Hall

티켓 R 100,000 S 80,000 A 60,000 B 40,000 C 20,000

멘델스존 | 헤브리디스 서곡, 핑갈의 동굴, 작품 26
F. Mendelssohn | Hebrides Overture, Fingal's Cave, Op. 26

멘델스존 | 바이올린 협주곡 e단조, 작품 64
F. Mendelssohn | Violin Concerto in e minor, Op. 64

말러 | 교향곡 제5번
G. Mahler | Symphony No. 5

- 아스펜 음악제 음악학교, 줄리아드 음악대학, 콜롬비아 대학 졸업
- 15세에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과 전속 계약 이후 음반 및 DVD 발매
-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상(1990), 에이버리 피셔상(2008) 수상
- 그래미 어워드, 디아파종, 그랑프리 뒤 디스크,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 수상
- 빈 필하모닉,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시카고 심포니, BBC 심포니, 런던 심포니 등과 협연
- 아스펜 음악제, 탕글우드 페스티벌, 카라무어 뮤직 페스티벌, 블로섬 뮤직 페스티벌 등 참가

- Studied at the Juilliard School with Dorothy DeLay and Hyo Kang, at Aspen with Jens Ellermann, and at Columbia University.
- Awarded an Avery Fisher Career Grant in 1990 and the coveted Avery Fisher Prize in 2008.
- Earned Multiple Grammys, a Grand Prix du Disque, Diapason d'Or, and Gramophone Editor's Choice.
- Performed with prestigious orchestras, including the Vienna Philharmonic, Cleveland Orchestra, Berlin Radio Symphony, Chicago Symphony, BBC Symphony, and London Symphony, to name a few.
- Summer season engagements include appearances at the Aspen, Tanglewood, Caramoor, and the Blossom Music Festivals.



695TH 음악에 드리운 빛과 그림자, 훔멜의 트럼펫 협주곡과 브람스 교향곡 제4번

Light and Dark Cast on Music, Hummel's Trumpet Concerto and Brahms's Symphony No. 4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첼로의 긴 아르페지오를 따라 올라가면 녹음이 우거진 6월, 음악의 정원이 펼쳐집니다.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으로 힘차게 시작해 훔멜의 협주곡과 브람스의 교향곡 사이를 거닐며 때로는 환한 때로는 그늘진 음악의 정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석 객원지휘자 곽 승이 지휘봉을 잡은 KBS교향악단과 함께 노르웨이의 젊은 여성 트럼페터 티네 텅 헬세트가 훔멜의 트럼펫 협주곡 E♭ 장조를 협연합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헬세트의 맑고 환한 트럼펫 음색과 안정적인 고음을 실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어지는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 제4번 E단조는 가장 브람스답고 가장 독일적인 교향곡 작품입니다. 1악장 한숨을 연상시키는 주제로 시작해서 이전 시대를 추억하는 파사칼리아 변주에 의한 4악장에 이르기까지 곡의 전면에 외로움과 체념, 비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훔멜과 브람스의 음악이 빚어낸 명과 암, 6월의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Follow along the cello's long arpeggio that begins at a low spot, and you will arrive at a musical garden brimful of June greenery. Begin with Rossini's spirited William Tell Overture, then walk along Hummel and Brahms to discover various shades of musical scenes. Principal Guest Conductor Sung Kwak leads the KBS Orchestra, and the Nordic trumpet sensation Tine Thing Helseth plays Hummel's Trumpet concerto in E♭ Major. Hear for yourself Helseth's famously bright and clear tone and mature musicality. Brahms's Symphony No. 4 in e minor is perhaps the most Brahmsian and most Germanic of Brahms's symphonies. This work, filled with anguish, resignation, and desolation, begins with a subject resembling a sigh in the first movement and arrives at a passacaglia passage that remembers the previous generation in the finale. Experience the light and dark in Hummel's and Brahms's works at the KBS Symphony Orchestra's subscription concert in June.

지휘 Conductor - 곽 승 Sung Kwak



지휘 곽 승 Sung Kwak
트럼펫 티네 텅 헬세트 Tine Thing Helseth

-

6. 19 (금) 오후 7시 30분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Friday, June 19, 7:30pm | Seoul Arts Center Concert Hall

6. 20 (토) 미정 | 경기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Saturday, June 20, TBD | Gyeonggi Gwangju City Culture & Sports Cente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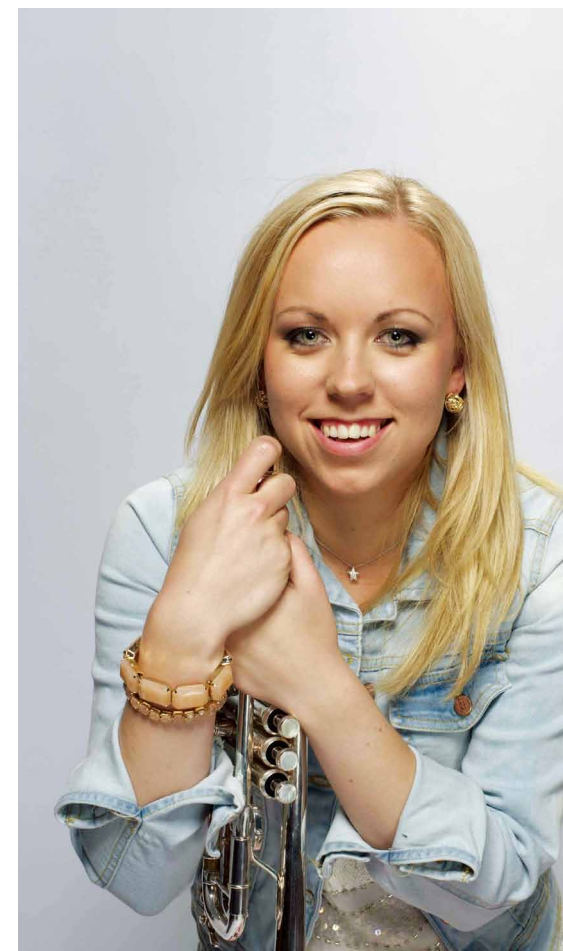
티켓 R 60,000 S 50,000 A 40,000 B 30,000 C 20,000

로시니 | 오페라 '윌리엄 텔' 서곡
G. Rossini | Opera 'Guillaume Tell' Overture

훔멜 | 트럼펫 협주곡 E♭ 장조
J. N. Hummel | Trumpet Concerto in E♭ Major

브람스 | 교향곡 제4번 e단조, 작품 98
J. Brahms | Symphony No. 4 in e minor, Op. 98

트럼펫 Trumpet - 티네 텅 헬세트 Tine Thing Helseth



- 비엔나 유로비전 영 뮤지션 콘테스트 2위(2006)
- 노르웨이 그래미 '올해의 신인' 클래식 부문 최초 수상자(2007)
- 에코 클래식 선정 '올해의 신인'(2013)
- 취리히 체임버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필하모닉,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뮌헨 심포니,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 BBC 스코틀랜드 교향악단(Proms), 슈트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 등과 협연
- 여성 금관앙상블 "tenThing" 결성

- Second prize in the 2006 Eurovision Young Musicians Competition.
- Named "Newcomer of the Year" at the 2007 Norwegian Grammy Awards (the first classical musician).
- Named "Newcomer of the Year" at the 2013 Echo Klassik Awards.
- Performed with the Zurich Chamber, Dresden Philharmonic, Royal Philharmonic, Munich Symphony, Prague Radio Symphony as well as at the BBC Proms.
- Founded all-female brass ensemble "tenThing".



Itamar Zorman

Nikolai Demidenko

Andreas Dells

Igor Kamenz

Yoon-Hee Kim

Shao-chia Lu

Haochen Chang

Roman Rabinovich

Alban Gerhardt

Dagmar Peckova

Stephan Genz

Nikolai Schukoff

Kathleen Kim

Esther Yoo

A Kyeong Lee

Daesan Noh

Susie Koh

Hye-Jung Kang

Walter Weller

Gil Shaham

Tine Thing Helseth

Carolina Ulrich

2015
SUBSCRIPTION
CONCERTS

KBS
SYMPHONY
ORCHESTRA

696TH 위안을 얻기 원한다면...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과 브람스 독일 레퀴엠

Longing for consolation...Mozart's Violin Concert and Brahms's A German Requiem

열세 살 나이로 KBS교향악단과 협연한 바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고수지가 무대에 올라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 가장 밝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가진 곡,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을 연주합니다. 20대에 접어들며 이전의 신동 이미지를 벗고 성숙한 연주자로 자리 잡을 그녀의 성장을 기대해봅니다. 브람스가 마틴 루터 번역의 독일어 개신교 성경을 가사로 쓴 <독일 레퀴엠>은 실제 전례보다는 무대를 위한 종교적 성격의 작품입니다. 브람스의 신앙적 묵상을 엿볼 수 있는 이 곡에서는 덧없는 인생, 모든 인간이 처한 죽음이라는 운명, 사랑하는 이를 잃은 자들의 슬픔과 그들에게 보내는 위안, 결국 망자는 영원한 안식을 얻고 부활을 통해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는 7곡의 노래로 구성됩니다. 소프라노의 목소리로 전하는 위로의 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바리톤이 부르는 '우리가 영구히 머물 도성은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에 이르러 정제된 합창과 탄탄한 관현악으로 만납니다. 또한 음악감독 요엘 레비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전달자의 역할을 택할 것인지 화려하고 극적인 표현으로 설득할 것인지 해석의 방향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를 통해 죽음, 그 너머를 향한 브람스의 고뇌와 여기서 얻은 위안과 평화를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Susie Koh, who has performed with the KBS Symphony Orchestra at the age of thirteen, returns to play one of Mozart's brightest and most hauntingly beautiful works, Violin Concerto No. 3 in G Major. As Koh enters her twenties, classical music lovers are privileged to watch the child prodigy grow into a mature musician. Brahms's German Requiem, of which texts were collected by the composer himself from the Lutheran Bible, is a sacred work to be sung in a concert setting rather than a liturgical Mass. Revealing Brahms's humanly and religious contemplations, the work is comprised of seven parts that reflect upon the vanity of human life, mortality, grief of men who lost loved ones and consolations for them, eternal rest, and hope for reunification through resurrection. Listen for the consoling words by the soprano, "you now have sadness (Ihr habt nun Traurigkeit)," then by the baritone, "For here we have no lasting place / Behold, I tell you a mystery / Then shall be fulfilled (Denn wir haben hie keine bleibende Statt / Siehe, ich sage euch ein Geheimnis / Dann wird erfüllet werden)," and finally, "Blessed are the dead (Selig sind die Toten)". It will be another point of interest to see whether Maestro Yoel Levi will deliver the work from a detached messenger's point of view or as a passionate and dramatic advocate. We hope you will find consolation in Brahms's profound ruminations.



바이올린 Violin - **고수지** Susie Koh

- 예루살렘 심포니와 오케스트라 협연 데뷔(7세)
- 줄리아드 음악대학 입학(16세)
- 미국 카네기홀 데뷔 연주(2007년)
- 미국 펄만 뮤직 프로그램, 스위스 아스토나 국제 음악페스티벌, 하이페츠 국제 음악 협회 등 참가
- 아우렐리아 현악 사중주단 멤버로 피시 호프 실내악 콩쿠르(2009), 세인트 폴 스트링 콰르텟 콩쿠르, 렘브란트 실내악 콩쿠르, 철 엠 레이저 실내악 콩쿠르 등에서 금상 수상
- Debuted with the Jerusalem Symphony Orchestra at age 7.
- Entered the Juilliard School at age 16.
- Performed at the Carnegie Hall (2007).
- Appeared at the Perlman Music Program (USA), Astona International (Switzerland), Valdres Sommersymfoni (Norway), and Heifetz International Music Institute (USA).
- Member of the award-winning Aurelia String Quartet; the ensemble won the gold medals in the Fischhoff National Chamber Music Competition Junior Division, the St. Paul String Quartet Competition, the Jules M. Laser Chamber Music Competition, and the Rembrandt Chamber Players Chamber Music Competition.

지휘 Conductor - **요엘 레비** Yoel Levi



지휘 **요엘 레비** Yoel Levi
바이올린 **고수지** Susie Koh
소프라노 **강혜정** Hye-Jung Kang
바리톤 **스테판 겐츠** Stephan Genz
합창단 **연합합창단**

7. 23 (목) 미정
Thursday, July 23, TBD

7. 24 (금) 오후 7시 30분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Friday, July 24, 7:30pm | Seoul Arts Center Concert Hall

티켓 R 80,000 S 60,000 A 50,000 B 30,000 C 20,000

모차르트 | 오페라 '돈 조반니' 서곡
W. A. Mozart | Opera 'Don Giovanni' Overture

모차르트 |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G장조, K. 216
W. A. Mozart | Violin Concerto No. 3 in G Major, K. 216

브람스 | 독일 레퀴엠, 작품 45
J. Brahms | Ein Deutsches Requiem, Op. 45

소프라노 Soprano - **강혜정** Hye-Jung Kang



- 연세대학교 음대 및 매네스 음대 졸업
- 2005년 미국 뉴욕 The Michael Sisca Opera Award 수상
- 2010년 제3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소프라노 신인상
- 오페라 코지 판 투테, 피가로의 결혼, 카르멘, 돈 죠반니, 리골레토 등 주역 출연
- 현.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교수

- Studied at the Yonsei University and the Mannes College of Music.
- Recipient of The Michael Sisca Opera Award (2005).
- Won the "New Artist" award at the Korean Opera Award.
- Appeared in opera Cosi fan tutte, Le Nozze di Figaro, Don Giovanni, Rigoletto, among others.
- Currently teaches at the Keimyung University.

바리톤 Baritone - **스테판 겐츠** Stephan Genz



- 라이프치히 & 칼스루에 콘서바토리 졸업
- 브람스 국제콩쿠르, 휴고 볼프 국제콩쿠르, 벨기에 음악평론가 '올해의 신인상' 수상자
- 베를린 오페라, 함부르크 오페라, 밀라노 라 스칼라, 쟜페르페 드레스덴, 모스크바 볼쇼이 오페라 주역 출연
- 유럽 무대에서 오페라 박쥐, 코지 판 투테, 헨젤과 그레텔 주역 출연 예정

- Studied at the conservatory of Leipzig & Karlsruhe.
- Winner of International J. Brahms competition, International Hugo Wolf competition, and Belgium music critics' 'Young Artist of the Year'.
- Appeared at the Berlin and Hamburg Staatsopern, Milan's La Scala, Semperoper Dresden, and Bolshoi.
- Recent engagements; Opera Die Fledermaus, Cosi fan tutte, Hansel und Gretel.

697TH 한여름 밤의 낭만음악 - 베버, 슈만, 시벨리우스

Romantic Music of a Midsummer Night - Weber, Schumann, Sibelius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 밤의 꿈〉에 나오는 요정의 왕 오베론은 숲 속에 살면서 마법을 써서 인간 세상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곤 합니다. 8월 깊어가는 한여름 밤, 오베론과의 만남으로 시작하는 이번 무대는 낭만이 가득한 음악으로 우리를 이끅니다.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의 포문을 열었던 작곡가,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오페라 〈오베론〉 서곡을 시작으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와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제1번이 이어집니다.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긴밀한 대화를 바탕으로 유려한 선율과 깊은 서정 그리고 슈만의 음악적 이상이 실현된 작품입니다. 열아홉 살 나이로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공동 우승한 하오천 장의 당찬 협주로 감상합니다. 시벨리우스가 고향의 웅장한 빙하와 뾰뾰한 숲을 그리며 쓴 교향곡 제1번에는 핀란드 민속음악에 대한 향수와 독일 후기 낭만음악에서 받은 영향이 드러워져 있습니다. 세계 3대 지휘콩쿠르에서 우승한 샤오치아 루가 이끄는 KBS교향악단의 연주로 한여름 밤의 음악이 주는 청량감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Oberon, the king of the fairies in Shakespeare's comedy play A Midsummer Night's Dream, dwells in the forest and performs magic in order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the human world. This concert of an August midsummer's night is a celebration of romantic music. The concert presents Carl Maria von Weber's Overture to his own opera Oberon, Schumann's Piano Concerto in a minor, and Sibelius's Symphony No. 1. Schumann's Piano Concerto is marked by intimate conversations between the solo piano and the orchestra, splendid melodies, and overflowing lyricism-overall, a realization of Schumann's musical ideals. The pianist Haochen Zhang, who won the Van Cliburn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at the age of nineteen, is the soloist. Sibelius's Symphony No. 1, written with the composer's reminiscence of the grand glacier and dense forests of his homeland, is replete with nostalgia for Finnish folk music and influences from the late German Romanticism. Enjoy fresh interpretations by the conductor Shao-Chia Lü, winner of three major international conducting competitions.

지휘 샤오치아 루 Shao-chia Lu

피아노 하오천 장 Haochen Chang

-

8. 20 (목) 오후 7시 30분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Thursday, August 20, 7:30pm | Seoul Arts Center Concert Hall

8. 21 (금) 미정 | 구리아트홀

Friday, August 21, TBD | Guri Arts Hall

-

티켓 R 60,000 S 50,000 A 40,000 B 30,000 C 20,000

베버 | 오페라 '오베론' 서곡
C. M. v. Weber | Opera 'Oberon' Overture

슈만 |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54
R. Schumann | Piano Concerto in a minor, Op. 54

시벨리우스 | 교향곡 제1번 e단조, 작품 39
J. Sibelius | Symphony No. 1 in e minor, Op. 39

지휘 Conductor - 샤오치아 루 Shao-chia Lu



- 인디애나 음악대학 및 빈 국립 음악대학 졸업
- 3대 메이저 국제 지휘콩쿠르 (키릴 콘드라신, 브장송, 페드로티 콩쿠르) 우승
- 영국 국립오페라, 노르웨이 로열 오페라, 슈투트가르트 오페라, 베를린 오페라 등 지휘
- 로마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노르웨이 및 스웨덴 방송교향악단, 헬싱키 필하모닉, 로열 리버풀,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NHK 심포니 등 지휘
- 베를린 코미셰 오페라 극장 수석 지휘자, 코블렌츠 라인 필하모니 및 코블렌츠 극장 음악감독, 하노버 오페라 음악감독 역임
- 현. 대만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 Studied at the Indiana University and Vienna Hochschule für Musik.
- Winner of the International Kiril Kondrashin Competition, International Besançon Competition, and Pedrotti International Competition.
- Conducted leading operas, including English National Opera, Norway Royal Opera, Stuttgart Opera, and Deutsche Oper Berlin.
- Conducted Orchestra Sinfonica di Santa Cecilia Rome, Norwegian and Swedish Radio orchestra, Helsinki Philharmonic Orchestra, Royal Liverpool Philharmonic, Orchestre National de France, NHK Symphony, among others.
- Principal Conductor of Komische Oper Berlin; General Music Director of both the Staatsorchester Rheinische Philharmonie Koblenz and of the Koblenz Theatre; Music Director of the Staatsoper Hannover.
- Since 2010, Music Director of National Symphony Orchestra of Taiwan.

피아노 Piano - 하오천 장 Haochen Chang



- 11세에 중국 센첸예술학교 입학(단 자오이 사사)
- 커티스 음악원 졸업(게리 그래프먼 사사)
- 제13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금메달(2009) 〈공동 우승〉
- BBC 프롬스(2014), 라 로끄 당떼롱 피아노 페스티벌(2012) 등 참여
- 뮌헨 필하모닉,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런던 필하모닉, 중국국립교향악단,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 Studied at the Shenzhen Arts School at the age of 11 with Dan Zhaoyi.
- Studied at the Curtis Institute of Music under Gary Graffman.
- Gold-medal winner of the Thirteenth Van Cliburn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2009).
- Appeared at the BBC Proms (2014) and the Piano Festival La Roque d'Antheron (2012).
- Performed with the Munich Philharmonic (with Lorin Maazel), China National Symphony Orchestra, New Jersey Symphony Orchestra, Philadelphia Orchestra,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and Shanghai Symphony Orchestra, among others.

698TH 광활함을 품은 음악 - 라흐마니노프와 차이콥스키

Music of Russian Vastness, Rachmaninoff and Tchaikovsky

깊어가는 가을, 광활한 대륙을 품은 러시아 음악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스트라빈스키의 짧고 강렬한 환상곡 〈불꽃놀이〉로 문을 열고 압도적인 스케일, 지치지 않는 힘, 진한 감성과 긴 호흡을 요구하는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들려줍니다. 2008년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피아니스트 로만 라비노비치가 협연자로 나서서 무대를 휩쓰는 폭풍우 같은 진정한 비르투오시타를 선보입니다. 차이콥스키 특유의 선율미와 달콤함과 씩씩함을 오가는 화성, 왈츠를 품은 3악장과 금관이 힘차게 외치는 4악장,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5번이 이어집니다. 요엘 레비가 이끄는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음악의 큰 흐름을 따르면서 동시에 곳곳에서 소용돌이치는 세세한 사건들도 놓치지 않는 섬세한 음악을 경험케 할 것입니다.

In the deepening autumn, the vastness of Russian music embraces us with this program. The concert opens with Stravinsky's succinct yet intense fantasy, Feu d'artifice, followed by the colossal Rachmaninoff Piano Concerto No. 3. Roman Rabinovich, the winner of the 2008 Arthur Rubinstein Piano Competition, displays sweeping and ardent bravura. Tchaikovsky's Symphony No. 5 is full of exuberance with melodic beauty, bittersweet harmonies, vibrant dances, and resonating brasses. Maestro Yoel Levi and the KBS Symphony Orchestra bring to life the immense yet delicate world of Russian music.

지휘 Conductor - 요엘 레비 Yoel Levi



지휘 요엘 레비 Yoel Levi
피아노 로만 라비노비치 Roman Rabinovich

9. 17 (목) 미정 | 오산문화예술회관
Thursday, September 17, TBD | Osan Arts Center

9. 18 (금) 오후 7시 30분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Friday, September 18, 7:30pm | Seoul Arts Center Concert Hall

티켓 R 60,000 S 50,000 A 40,000 B 30,000 C 20,000

스트라빈스키 | 불꽃놀이, 작품 4
I. Stravinsky | Feu d'Artifice, Op. 4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d단조, 작품 30
S. Rachmaninoff | Piano Concerto No. 3 in d minor, Op. 30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5번 e단조, 작품 64
P. I. Tchaikovsky | Symphony No. 5 in e minor, Op. 64

- 이스라엘 필하모닉 협연 데뷔(지휘. 주빈 메타, 10세)
- 텔 아비브 음악아카데미, 커티스 음악원, 줄리아드 음악대학 석사과정 졸업
- 제12회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2008)
- 그랑프리 아나마토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2007)
- 버펄로 필하모닉, 델라웨어 심포니, 카메라타 예루살렘, 하이파 심포니 등과 협연
- 루체른 페스티벌,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페스티벌 등 다수 참가
- Made a debut with the Israel Philharmonic with Zubin Mehta at the age of 10.
- Studied at the Tel-Aviv Music Academy with Arie Vardi, at the Curtis Institute of Music with Seymour Lipkin, and at the Juilliard School with Robert McDonald.
- Winner of the 2008 Arthur Rubinstein International Piano Master Competition.
- First Prize Winner of the Animato and Arjil Piano Competition in Paris and the "Vendome Virtuosi" prize (2007).
- Performed with the Buffalo Philharmonic, Delaware Symphony, Camerata Jerusalem, and Haifa Symphony orchestras, among many others.
- Appeared at the Lucerne Festival, Mecklenburg-Vorpommern Festival, Ludwigsburger Schlossfestspiele, Leipzig Gewandhaus, Salle Cortot in Paris, Mann Auditorium in Tel-Aviv, and at Vienna's Musikverein.

피아노 Piano - 로만 라비노비치 Roman Rabinovich



699TH 비르투오조를 만나다 Ⅲ 첼로의 매력 속으로 - 알반 게르하르트

Meet Virtuosos Ⅲ Master of Cello - Alban Gerhardt

가을, 계절을 닮은 악기, 첼로의 매력으로 빠져듭니다. 첼로를 사랑한 작곡가 프로코피예프는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의 도움을 받아 첼로라는 악기가 가진 표현력의 한계를 실험하는 곡, 〈신포니아 콘체르탄테〉를 완성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첼로의 팽팽한 싸움, 때로는 긴밀한 협업으로 구성된 이 곡을 독일의 젊은 거장, 알반 게르하르트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그의 손에 들린 첼로는 노래하며 친숙한 작품은 새로움을 입고 알려지지 않은 작품은 새 생명을 얻는다’는 찬사를 받고 있는 그의 연주를 통해 첼로의 깊은 매력에 빠져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슈만이 사랑하는 아내 클라라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두 해를 맞이하던 1841년, 작곡 순서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교향곡 제4번을 썼습니다. 쉽 없이 연속되는 네 악장의 치밀한 음악적 전개를 수석 객원지휘자 광승이 이끄는 KBS교향악단의 연주로 풀어나갑니다. 첼로의 깊은 매력, 교향악의 진한 매력에 빠져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This program is a celebration of the cello, an instrument that resembles autumn. The night opens with a work by Zoltán Kodály, the father of Hungarian folk music. Kodály spent his youth in the Hungarian town of Galánta, and with folk tunes he collected in this area, created the Danses de Galánta, a work marked by rapidly changing tempo, exotic melodies, and lively rhythm. Prokofiev loved the cello, and, with the help of the cellist Mstislav Rostropovich, completed Sinfonia Concertante, in which the composer explores the possibilities of the instrument and creates taut tension between seemingly contradictory elements, as well as between the orchestra and the soloist. Performances of the cello virtuoso Alban Gerhardt have been praised with such phrase as: “The cello starts to sing under his hands, standard works are newly discovered and unknown pieces are brought to life again”. Gerhardt’s performance with the KBS Symphony Orchestra will allow you to rediscover the beauty of the cello. Schumann’s Symphony No. 4 was written in 1841, the second year of his marriage to the beloved wife Clara. This elaborately constructed work will be performed under the baton of Principal Guest Conductor Sung Kw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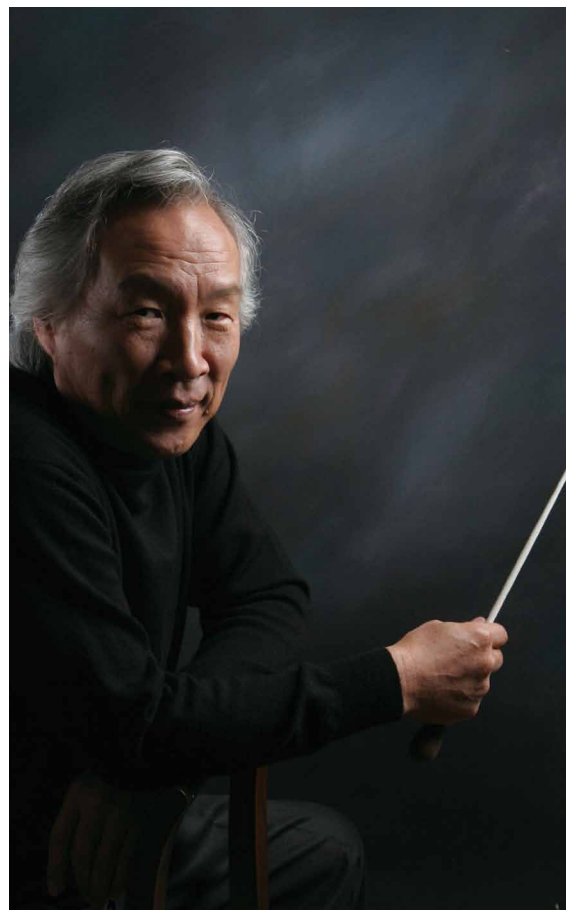
첼로 Cello – 알반 게르하르트 Alban Gerhardt



-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 무대로 데뷔(지휘. 세미온 비시코프, 21세)
- 에코 클래식 어워드 3회 수상(2009년 출시 레거 더블 음반)
- 작곡가 친은숙 첼로 협주곡 초연(BBC 프롬스, 2009)
- 에딘버리 페스티벌, 베를린 필하모니, 위그모어 홀, 산토리 홀, 샤틀레 등지에서 연주
- 구르트 마주어, 크리스토프 본 도흐나니,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콜린 데이비스, 레너드 슬래트킨, 파보 예르비, 예사-페카 살로넨 등이 이끄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협연
- 오리건 교향악단 상주 음악가(2012~2015)

- Made a debut with the Berlin Philharmonic Orchestra under Semyon Bychkov at age 21.
- Won three ECHO Classic Awards for his all-Reger double CD (2009).
- Invited to perform Unsuk Chin’s Cello Concerto at BBC Proms (2009).
- Appeared at the Edinburgh Festival, Berlin Philharmonie, Wigmore Hall, Suntory Hall and the Chatelet.
- Collaborated with world’s leading conductors, including Kurt Masur, Christoph von Dohnányi, Christoph Eschenbach, Sir Colin Davis, Leonard Slatkin, Paavo Järvi, and Esa-Pekka Salonen.
- Artist in residence at the Oregon Symphony Orchestra (2012-2015).

지휘 Conductor – 광 승 Sung Kwak



지휘 광 승 Sung Kwak
첼로 알반 게르하르트 Alban Gerhardt

10. 15 (목) 오후 7시 30분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Thursday, October 15, 7:30pm | Seoul Arts Center Concert Hall

10. 16 (금) 미정 | 강동아트센터
Friday, October 16, TBD | Gangdong Arts Center

티켓 R 80,000 S 60,000 A 50,000 B 30,000 C 20,000

코다이 | 갈란타 춤곡
Z. Kodály | Dances of Galánta

프로코피예프 |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e단조, 작품 125
S. Prokofiev | Sinfonia Concertante in e minor, Op. 125

슈만 | 교향곡 제4번 d단조, 작품 120
R. Schumann | Symphony No. 4 in d minor, Op. 120

700TH 다시, 살아나라 - 말러의 교향곡 제2번 '부활'

Rise, again - Mahler's Symphony No. 2 'Resurrection'

KBS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가 700회를 맞이합니다. 1956년 창단한 이래 한국의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과 동고동락해온 60여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더욱 새로운 앞날을 조망하는 감격스러운 무대입니다. 이번 제700회 정기연주회를 기념하면서 말러의 교향곡 제2번 '부활'을 선택했습니다. 이 곡은 말러가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고뇌에서 얻은 하나의 답입니다. 동시에 6년에 걸친 작곡 기간, 다섯 개의 악장, 한 시간 반에 달하는 연주 시간, 거대한 편성과 무대 밖의 금관악기들과 같은 여러 악기조합을 실험한 음향, 긴밀한 주제의 전개 등 말러 교향곡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자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대가 고통 받은 것, 그것이 그대를 신에게 인도하리라!' 라는 5악장의 가사처럼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이들을 음악이라는 불멸의 세계로 이끄는 뜻깊은 자리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The KBS Symphony Orchestra presents its 700th subscription concert. With this meaningful concert, the Orchestra remembers its six decade-long history, shared and supported by the classic music lovers in Korea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56. In 2014, the KBS Symphony Orchestra performed Mahler's Symphony No. 1 as Maestro Yoel Levi's inaugural concert. In the 700th subscription concert, the Orchestra has chosen to play Mahler's Second Symphony, which is dubbed "Resurrection". Symphony No. 2 is in a way an answer to Mahler's own deliberation on life and death, as well as the world beyond the human realm. The work is also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Mahler's compositional career: it took six years to complete, contains five lengthy movements, lasts an hour and a half in a concert, boasts massive orchestration, experiments with special sound effects involving off-stage brass parts, and develops with tightly linked musical subjects—it is a truly glorious work. The text from the fifth movement proclaims: "That for which you suffered / To God will it lead you! (Was du geschlagen / Zu Gott wird es dich tragen!)" We hope that our audiences will experience the eternal beauty and depth of music in this concert.

지휘 Conductor - 요엘 레비 Yoel Levi



지휘 요엘 레비 Yoel Levi
소프라노 캐롤리나 울리치 Carolina Ullrich
메조 소프라노 다그마르 페코바 Dagmar Peckova
합창단 연합합창단
-
11. 19 (목) 미정
Thursday, November 19, TBD
11. 20 (금) 오후 7시 30분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Friday, November 20, 7:30pm | Seoul Arts Center Concert Hall
-
티켓 R 80,000 S 60,000 A 50,000 B 30,000 C 20,000

말러 | 교향곡 제2번, '부활'
G. Mahler | Symphony No. 2, 'Resurrection'

소프라노 Soprano - 캐롤리나 울리치 Carolina Ullrich



- 산티아고 카톨릭 대학 및 뮌헨 음악대학 졸업
- 국립 성악콩쿠르 1위 및 ARD콩쿠르 청중상 수상
- 크리스티안 틸레만, 사이먼 래틀, 베르트랑 드 비이 등 세계적인 지휘자와 협연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사랑의 묘약' 등 주역 출연
- 현. 드레스덴 젤퍼오퍼 앙상블 단원
- Studied at the Universidad Católica Santiago and the 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 in Munich.
- First prizes at the National Singing Competition 2006; Winner of the audience award of the ARD-Competition 2006.
- Performed with Christian Thielemann, Sir Simon Rattle, Bertrand de Billy, etc.
- Appeared in opera Le Nozze di Figaro, Don Giovanni, L'elisir D'amore, among others.
- Since 2010 a member of the ensemble of the Dresden Semperoper.

※ 상기 출연자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artist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메조 소프라노 Mezzo Soprano - 다그마르 페코바 Dagmar Peckova

- 프라하 콘서바토리 졸업
- 프라하 스프링 페스티벌 및 드보르자크 콩쿠르 1위
- 오페라 몬테카를로, 트리스탄과 이졸데, 라인의 황금 등 출연
- 빈 필하모닉, 파리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BBC 심포니, NHK 심포니 등 협연
- BBC 프롬스,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프라하 국립극장, 로열 오페라 하우스 코벤트 가든 등지에서 오페라 주역 출연
- Graduated in Prague Conservatory.
- 1st Prize at the Prague Spring Festival & at the Dvorak competition.
- Appeared in the opera, Monte Carlo, Tristan & Isolde, Das Rheingold, etc.
- Performed with Vienna Philharmonic Orchestra, Orchestre de Paris, London Symphony, BBC Symphony, and NHK Symphony, among others.
- Performed in BBC Proms, Gewandhaus Leipzig, National Theatre Prague, and Royal Oprea House Convent Garden London, among others.



701ST 화해와 화합, 그리고 ‘환희’를 꿈꾸며...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Reconciliation, Unification, and Jubilation... Beethoven's Symphony No. 9 "Choral"

저물어가는 한 해에 대한 아쉬움과 다가오는 새해를 향한 설렘이 교차하는 12월, KBS교향악단의 2015년 마지막 무대는 브람스와 베토벤의 명곡으로 꾸밈니다. 먼저 강렬함과 깊은 애수, 양면의 매력이 공존하는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십대의 나이에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입상한 한국계 미국인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의 협연으로 감상합니다. 또한, 작년 시즌에는 수석 객원지휘자 광승이 지휘했던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을, 2015년의 마지막 무대에 오른 요엘 레비의 지휘로 만납니다. 더욱 정교하게 다듬은 KBS교향악단의 합주에 뛰어난 기량과 풍부한 감성을 두루 갖춘 탄탄한 독창진, 연합 합창단의 정제된 합창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음악을 통한 화해와 화합, 그리고 환희를 누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As we send off the old and greet the new, the KBS Symphony Orchestra presents its last season concert with masterworks by Brahms and Beethoven. Brahms's sorrowful yet passionate Violin Concerto is played by the Korean-American violinist Esther Yoo, the youngest winner of the Sibelius Violin Competition and the Queen Elisabeth Violin Competition. Maestro Yoel Levi leads the podium for Beethoven's Symphony No. 9. With a refined ensemble by the KBS Symphony Orchestra and a harmonious collaboration between soloists and chorus, this concert will be an exemplar of reconciliation, unification, and musical bliss.

지휘 Conductor - 요엘 레비 Yoel Levi



지휘 요엘 레비 Yoel Levi
바이올린 에스더 유 Esther Yoo
소프라노 캐슬린 김 Kathleen Kim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 A Kyeong Lee
테너 니콜라이 슈코프 Nikolai Schukoff
베이스 노대산 Daesan Noh
합창단 연합합창단

-
12. 10 (목) 오후 7시 30분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Thursday, December 10, 7:30pm | Seoul Arts Center Concert Hall

12. 11 (금) 미정 | 천안예술의전당
Friday, December 11, TBD | Cheonan Arts Center
-
티켓 R 100,000 S 80,000 A 60,000 B 40,000 C 20,000

브람스 |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77
J. Brahms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77

베토벤 | 교향곡 제9번 d단조, 작품 125 ‘합창’
L. v. Beethoven | Symphony No. 9 in d minor, Op. 125, 'Choral'

바이올린 Violin - 에스더 유 Esther Yoo



-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국제콩쿠르 3위(2010년, 16세)
- 퀸 엘리자베스 바이올린 콩쿠르 4위(2012년, 18세)
-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핀란드 라디오 오케스트라, 헬싱키 필하모닉, 서울시립교향악단, BBC 스코틀랜드 교향악단, 체코 비르투오지 체임버 오케스트라, 신포니아 바르샤바 등 협연

- Made a concerto debut at the age of 8.
- Youngest prize winner of the 10th International Sibelius Violin Competition (Third prize, 2010).
- Prize winner of the Queen Elisabeth Violin Competition (Fourth prize, 2012).
- Performed with leading orchestra, including the Philharmonia Orchestra, Finnish Radio Symphony Orchestra, Helsinki Philharmonic Orchestra,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Czech Virtuosi Chamber Orchestra and Sinfonia Varsovia.

소프라노 Soprano - 캐슬린 김 Kathleen Kim



- 맨하탄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주역 가수로 데뷔(2007)
- 오페라 마술피리, 가면무도회, 호프만의 이야기 등 주역 출연
- 말러 교향곡 제8번,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등 독창자로 출연
- 현.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 중

테너 Tenor - 니콜라이 슈코프 Nikolai Schukoff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졸업
- 오페라 발퀴레, 카르멘, 박쥐, 노르마, 라인골드 등 주역 출연
-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말러 교향곡 제8번, 베르디 레퀴엠 등 출연
-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런던 필하모닉,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등과 협연
- 현. 유럽을 무대로 활발한 활동 중

메조 소프라노 Mezzo Soprano - 이아경 A Kyeong Lee



- 경희대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 비오티 고등음악원 졸업
- 빈첸초 벨리니 콩쿠르, 마리오 델 모나코 콩쿠르 등 6대 콩쿠르 우승
- 제4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여주역상 수상(2011)
- 베를린 필 앙상블, KBS교향악단, 서울시향 등과 협연
- 현.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베이스 Bass - 노대산 Daesan Noh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및 피바디 콘서바토리 졸업
- The Academy of Vocal Arts에서 Opera Artist Diploma 과정 졸업
- 카디프 국제콩쿠르, 푸치니 오페라 국제콩쿠르, 마리오 란자 국제콩쿠르 등 1위
- 영국 BBC 국립교향악단, 몬트리올 심포니, 퀘벡 심포니 등과 협연
- 현.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 중

제690회 도약하는 또 한 걸음, 음악의 환상 속으로

지휘 _ 요엘 레비 · 바이올린 _ 이타마르 조르만

1. 16 (금) 예당 · 1. 17 (토) 안양

한국 작곡가	미정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작품 14

제696회 위안을 얻기 원한다면...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과 브람스 독일 레퀴엠

지휘 _ 요엘 레비 · 바이올린 _ 고수지 · 소프라노 _ 강혜정 · 바리톤 _ 스테판 겐츠

7. 23 (목) 미정 · 7. 24 (금) 예당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 서곡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G장조, K. 216
브람스	독일 레퀴엠, 작품 45

690TH Another Leap Forward, Into Musical Phantasmagoria

Conductor _ Yoel Levi · Violin _ Itamar Zorman
Fri, Jan. 16, SAC · Sat, Jan. 17, Anyang

Korean Composer	TBD
P. I. Tchaikovsky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35
H. Berlioz	Symphonie Fantastique, Op. 14

696TH Longing for consolation... Mozart's Violin Concert and Brahms's A German Requiem

Conductor _ Yoel Levi · Violin _ Susie Koh · Soprano _ Hye-Jung Kang
Baritone _ Stephan Genz | Thu, Jul. 23, TBD · Fri, Jul. 24, SAC

W. A. Mozart	Opera 'Don Giovanni' Overture
W. A. Mozart	Violin Concerto No. 3 in G Major, K. 216
J. Brahms	Ein Deutsches Requiem, Op. 45

제691회 비르투오조를 만나다 I 익숙함 속에 새로움 - 니콜라이 데미덴코

지휘 _ 안드레아스 델프스 · 피아노 _ 니콜라이 데미덴코

2. 12 (목) 미정 · 2. 13 (금) 예당

제이 커니스	무지카 셀레스티스 (천상의 음악)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제5번, 작품 55
드보르자크	교향곡 제6번 D장조, 작품 60

제697회 한여름 밤의 낭만음악 - 베버, 슈만, 시벨리우스

지휘 _ 샤오치아 뤼 · 피아노 _ 하오천 장

8. 20 (목) 예당 · 8. 21 (금) 구리

베버	오페라 '오베론' 서곡
슈만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54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1번 e단조, 작품 39

691ST Meet Virtuosos I The New Amongst the Familiar - Nikolai Demidenko

Conductor _ Andreas Delfs · Piano _ Nikolai Demidenko
Thu, Feb. 12, TBD · Fri, Feb. 13, SAC

A. Jay Kernis	Musica Celestis
S. Prokofiev	Piano Concerto No. 5 in G Major, Op. 55
A. Dvořák	Symphony No. 6 in D Major, Op. 60

697TH Romantic Music of a Midsummer Night - Weber, Schumann, Sibelius

Conductor _ Shao-chia Lu · Piano _ Haochen Chang
Thu, Aug. 20, SAC · Fri, Aug. 21, Guri

C. M. v. Weber	Opera 'Oberon' Overture
R. Schumann	Piano Concerto in a minor, Op. 54
J. Sibelius	Symphony No. 1 in e minor, Op. 39

제692회 음악이 '영웅'을 말한다면... 베토벤 vs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지휘 _ 요엘 레비 · 피아노 _ 이고르 카멘스

3. 26 (목) 군포 · 3. 27 (금) 예당 · 3. 28 (토) 천안

한데미트	베버 주제에 의한 교향적 변용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 c단조, 작품 37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작품 40

제698회 광활함을 품은 음악 - 라흐마니노프와 차이콥스키

지휘 _ 요엘 레비 · 피아노 _ 로만 라비노비치

9. 17 (목) 오산 · 9. 18 (금) 예당

스트라빈스키	불꽃놀이, 작품 4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d단조, 작품 30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 e단조, 작품 64

692ND Musical Heroes, Music by Heroes... Beethoven vs. Richard Strauss

Conductor _ Yoel Levi · Piano _ Igor Kamenz
Thu, Mar. 26, Gunpo · Fri, Mar. 27, SAC · Sat, Mar. 28, Cheonan

P. Hindemith	Symphonic Metamorphosis of Themes by Carl Maria von Weber
L. v. Beethoven	Piano Concerto No. 3 in c minor, Op. 37
R. Strauss	Ein Heldenleben Op. 40

698TH Music of Russian Vastness, Rachmaninoff and Tchaikovsky

Conductor _ Yoel Levi · Piano _ Roman Rabinovich
Thu, Sep. 17, Osan · Fri, Sep. 18, SAC

I. Stravinsky	Feu d'Artifice, Op. 4
S. Rachmaninoff	Piano Concerto No. 3 in d minor, Op. 30
P. I. Tchaikovsky	Symphony No. 5 in e minor, Op. 64

제693회 봄, 열정과 도취의 음악 속으로...

지휘 _ 발터 벨러 · 바이올린 _ 김유희

4. 29 (수) 예당 · 4. 30 (목) 부산

스메타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블타바)
생상스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b단조, 작품 61
베토벤	교향곡 제7번 A장조, 작품 92

제699회 비르투오조를 만나다 III 첼로의 매력 속으로 - 알반 게르하르트

지휘 _ 광 승 · 첼로 _ 알반 게르하르트

10. 15 (목) 예당 · 10. 16 (금) 강동

코다이	갈란타 춤곡
프로코피예프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e단조, 작품 125
슈만	교향곡 제4번 d단조, 작품 120

693RD Spring, Music of Passion and Intoxication

Conductor _ Walter Weller · Violin _ Yoon-Hee Kim
Wed, Apr. 29, SAC · Thu, Apr. 30, Busan

B. Smetana	Die Moldau(Vltava), Symphonic Poem 'Má Vlast'
C. Saint-Saëns	Violin Concerto No. 3 in b minor, Op. 61
L. v. Beethoven	Symphony No. 7 in A Major, Op. 92

699TH Meet Virtuosos III Master of Cello - Alban Gerhardt

Conductor _ Sung Kwak · Cello _ Alban Gerhardt
Thu, Oct. 15, SAC · Fri, Oct. 16, Gangdong

Z. Kodály	Dances of Galánta
S. Prokofiev	Sinfonia Concertante in e minor, Op. 125
R. Schumann	Symphony No. 4 in d minor, Op. 120

제694회 비르투오조를 만나다 II 바람을 타고 온 현의 노래 - 길 샤함

지휘 _ 요엘 레비 · 바이올린 _ 길 샤함

5. 14 (목) 오산 · 5. 15 (금) 예당

멘델스존	헤브리디스 서곡, 핑갈의 동굴, 작품 26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e단조, 작품 64
말러	교향곡 제5번

제700회 다시, 살아나리라 - 말러의 교향곡 제2번 '부활'

지휘 _ 요엘 레비 · 소프라노 _ 캐롤리나 울리치 · 메조 소프라노 _ 다그마르 페코바

11. 19 (목) 미정 · 11. 20 (금) 예당

말러 | 교향곡 제2번, '부활'

제695회 음악에 드리운 빛과 그림자, 훔멜의 트럼펫 협주곡과 브람스 교향곡 제4번

지휘 _ 광 승 · 트럼펫 _ 티네 뢰 헬세트

6. 19 (금) 예당 · 6. 20 (토) 경기 광주

로시니	오페라 '윌리엄 텔' 서곡
훔멜	트럼펫 협주곡 E♭ 장조
브람스	교향곡 제4번 e단조, 작품 98

제701회 화해와 화합, 그리고 '환희'를 꿈꾸며...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지휘 _ 요엘 레비 · 바이올린 _ 에스더 유 · 소프라노 _ 캐슬린 김
메조 소프라노 _ 이아경 · 테너 _ 니콜라이 슈코프 · 베이스 _ 노대산

12. 10 (목) 예당 · 12. 11 (금) 천안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77
베토벤	교향곡 제9번 d단조, 작품 125 '합창'

694TH Meet Virtuosos II Songs on the String - Gil Shaham

Conductor _ Yoel Levi · Violin _ Gil Shaham
Thu, May 14, Osan · Fri, May 15, SAC

F. Mendelssohn	Hebrides Overture, Fingal's Cave, Op. 26
F. Mendelssohn	Violin Concerto in e minor, Op. 64
G. Mahler	Symphony No. 5

695TH Light and Dark Cast on Music, Hummel's Trumpet Concerto and Brahms's Symphony No. 4

Conductor _ Sung Kwak · Trumpet _ Tine Thing Helseth
Fri, Jun. 19, SAC · Sat, Jun. 20, Gyeonggi Gwangju

G. Rossini	Opera 'Guillaume Tell' Overture
J. N. Hummel	Trumpet Concerto in E♭ Major
J. Brahms	Symphony No. 4 in e minor, Op. 98

701ST Reconciliation, Unification, and Jubilation...

Beethoven's Symphony No. 9 "Choral"
Conductor _ Yoel Levi · Violin _ Esther Yoo · Soprano _ Kathleen Kim
Mezzo Soprano _ A Kyeong Lee · Tenor _ Nikolai Schukoff · Bass _ Daesan Noh
Thu, Dec. 10, SAC · Fri, Dec. 11, Cheonan

J. Brahms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77
L. v. Beethoven	Symphony No. 9 in d minor, Op. 125, 'Choral'

모든
감동이
머무는 자리

정기회원

KBS교향악단이 준비한 모든 감동의 순간을 함께 하실 관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총 12회의 정기연주회를 사전에 지정하신 좌석에서 만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좌석별 가격

	정가	정기회원가격 (40% 할인)
R 석	880,000원	528,000원
S 석	700,000원	420,000원
A 석	560,000원	336,000원
B 석	380,000원	228,000원
C 석	240,000원	144,000원

가입 혜택

- 연간 지정좌석 제공
- 티켓 사전 발송(교향악단 사무국 통한 예매 시)
- 기획연주회 20% 할인(1인 4매)
- 프로그램북 현장 무료 제공
- 공연정보 안내(SMS, DM)
- KBS교향악단 탁상달력 제공

※ C석 패키지의 경우 합창단이 출연하는 제696회,
제701회 정기연주회는 합창석 좌석 지정 불가
※ 좌석 교환 및 환불은 제690회 정기연주회
(1월 16일) 전까지만 가능

가입 안내

기존회원 재가입

지정좌석 확정 (좌석 변경 희망시 유선 문의) ⇒ 등급별 가입비 결제 (2014년 12월 21일까지/무통장입금, 카드결제 가능)
⇒ 티켓 발송 (2015년 1월 10일까지/주소, 연락처 변경 사무국 문의)

신규 가입

KBS교향악단 사무국
유선 가입 02-6099-7400 / 7412 방문 가입 한국방송공사 신관 1층

예술의전당
온라인 가입 <http://www.sacticket.co.kr> (02-580-1300 / 11월 중 오픈)

2015 SUBSCRIPTION CONCERTS

실속 있는
당신의
선택

K-lang 회원

KBS교향악단의 다양한 공연을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2015년도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회를 폭넓게 관람하실 고객을 위한 제도입니다.

회원 안내

연회비 2015. 1.1 ~ 12. 31	티켓할인
30,000원 ※7월 이후 가입시 2만원	정기·기획연주회 30% 할인 (1인 6매)

가입 혜택

- 프로그램북 현장 무료 제공
- 공연정보 안내(SMS, DM)
- KBS교향악단 탁상달력 제공
- 회원카드 제공

가입 안내

KBS교향악단 사무국
유선 가입 02-6099-7400 / 7412 방문 가입 한국방송공사 신관 1층

개성파
마니아를 위한
제안

K-Pack 회원

2015년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를 개성 있는 5개 테마로 묶은 패키지입니다.
취향에 맞는 패키지를 선택하시어 30% 할인된 가격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K-Pack A Novus Series	R석	S석	A석	B석	C석
	140,000원	112,000원	91,000원	63,000원	42,000원
미래가 기대되는 차세대 연주자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690회 정기연주회 2015. 1. 16(금)	제697회 정기연주회 2015. 8. 20(목)		제698회 정기연주회 2015. 9. 18(금)		
요엘 레비 & 이타마르 조르만 Vn 한국 작곡가 / 미정 차이콥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베를리오즈 / 환상교향곡, 작품 14	샤오치아 뤼 & 하오천 장 Pf 베버 / 오페라 '오베론' 서곡 슈만 /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54 시벨리우스 / 교향곡 제1번 e단조, 작품 39		요엘 레비 & 로만 라비노비치 Pf 스트라빈스키 / 불꽃놀이, 작품 4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d단조, 작품 30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5번 e단조, 작품 64		

K-Pack B Great Composer Series	R석	S석	A석	B석	C석
	126,000원	105,000원	84,000원	63,000원	42,000원
클래식 거장 베토벤, 슈트라우스, 브람스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692회 정기연주회 2015. 3. 27(금)	제693회 정기연주회 2015. 4. 29(수)		제695회 정기연주회 2015. 6. 19(금)		
요엘 레비 & 이고르 카멘즈 Pf 힌데미트 / 베버 주제에 의한 교향적 변용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c단조, 작품 37 슈트라우스 / 영웅의 생애, 작품 40	발터 벨러 & 김윤희 Vn 스메타나 /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블타바) 생상스 /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b단조, 작품 61 베토벤 / 교향곡 제7번 A장조, 작품 92		곽승 & 티네 텅 헬세트 Tp 로시니 / 오페라 '윌리엄 텔' 서곡 홀멜 / 트럼펫 협주곡 E♭장조 브람스 / 교향곡 제4번 e단조, 작품 98		

K-Pack C 아시아 클래식스타 패키지	R석	S석	A석	B석	C석
	210,000원	168,000원	133,000원	91,000원	56,000원
아시아 출신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연주자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693회 정기연주회 2015. 4. 29(수)	제696회 정기연주회 2015. 7. 24(금)	제697회 정기연주회 2015. 8. 20(목)	제701회 정기연주회 2015. 12. 10(목)		
발터 벨러 & 김윤희 Vn 스메타나 /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블타바) 생상스 /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b단조, 작품 61 베토벤 / 교향곡 제7번 A장조, 작품 92	요엘 레비 & 고수지 Vn 강혜정 Sop · 스테판 겐츠 Bar 모차르트 / 오페라 '돈 조반니' 서곡 모차르트 /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G장조, K 216 브람스 / 독일 레퀴엠, 작품 45	샤오치아 뤼 & 하오천 장 Pf 베버 / 오페라 '오베론' 서곡 슈만 /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54 시벨리우스 / 교향곡 제1번 e단조, 작품 39	요엘 레비 & 에스더 유 Vn 캐슬린 김 Sop · 이아경 M. Sop 니콜라이 슈코프 Ten · 노대산 Bar 브람스 /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77 베토벤 / 교향곡 제9번 d단조, 작품 125 '합창'		

K-Pack D 불멸의 명곡 패키지	R석	S석	A석	B석	C석
	196,000원	161,000원	126,000원	91,000원	56,000원
시대를 넘어 전세계인에게 사랑받은 명곡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693회 정기연주회 2015. 4. 29(수)	제695회 정기연주회 2015. 6. 19(금)	제698회 정기연주회 2015. 9. 18(금)	제701회 정기연주회 2015. 12. 10(목)		
발터 벨러 & 김윤희 Vn 스메타나 /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블타바) 생상스 /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b단조, 작품 61 베토벤 / 교향곡 제7번 A장조, 작품 92	곽승 & 티네 텅 헬세트 Tp 로시니 / 오페라 '윌리엄 텔' 서곡 홀멜 / 트럼펫 협주곡 E♭장조 브람스 / 교향곡 제4번 e단조, 작품 98	요엘 레비 & 로만 라비노비치 Pf 스트라빈스키 / 불꽃놀이, 작품 4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d단조, 작품 30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5번 e단조, 작품 64	요엘 레비 & 에스더 유 Vn 캐슬린 김 Sop · 이아경 M. Sop 니콜라이 슈코프 Ten · 노대산 Bar 브람스 /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77 베토벤 / 교향곡 제9번 d단조, 작품 125 '합창'		

K-Pack E 콘체르토 No.3 패키지	R석	S석	A석	B석	C석
	182,000원	147,000원	119,000원	84,000원	56,000원
다양한 시대의 작곡가들이 남긴 협주곡 제3번을 개성있는 아티스트의 연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692회 정기연주회 2015. 3. 27(금)	제693회 정기연주회 2015. 4. 29(수)	제696회 정기연주회 2015. 7. 24(금)	제698회 정기연주회 2015. 9. 18(금)		
요엘 레비 & 이고르 카멘즈 Pf 힌데미트 / 베버 주제에 의한 교향적 변용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c단조, 작품 37 슈트라우스 / 영웅의 생애, 작품 40	발터 벨러 & 김윤희 Vn 스메타나 /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블타바) 생상스 /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b단조, 작품 61 베토벤 / 교향곡 제7번 A장조, 작품 92	요엘 레비 & 고수지 Vn 강혜정 Sop · 스테판 겐츠 Bar 모차르트 / 오페라 '돈 조반니' 서곡 모차르트 /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G장조, K. 216 브람스 / 독일 레퀴엠, 작품 45	요엘 레비 & 로만 라비노비치 Pf 스트라빈스키 / 불꽃놀이, 작품 4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d단조, 작품 30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5번 e단조, 작품 64		

정기연주회 티켓구매 안내

- 예술회전당에서 개최되는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티켓은 예술회전당 SAC Ticket, 인터파크, 옥션티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전화, 현장예매 모두 가능합니다.
- 공연 당일 현장 판매는 예매 마감 후 잔여 좌석에 대해 가능하며, 매진 시 현장 구매는 불가합니다.
- 티켓 예매 마감 시간 및 환불은 각 예매처의 규정을 따릅니다.

티켓예매처 안내

SAC Ticket
www.sacticket.co.kr

02-580-1300
www.sacticket.co.kr

예매는 인터파크
INTERPARK 티켓

1544-1555
ticket.interpark.com

AUCTION 티켓

1566-1369
ticket.auction.co.kr

공연 및 기타 문의

- T 02-6099-7400
- F 02-6099-7416
- W www.kbssymphony.org
- E symphony@kbssymphony.org
- f 페이스북 @kbssymphony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좌석배치도

